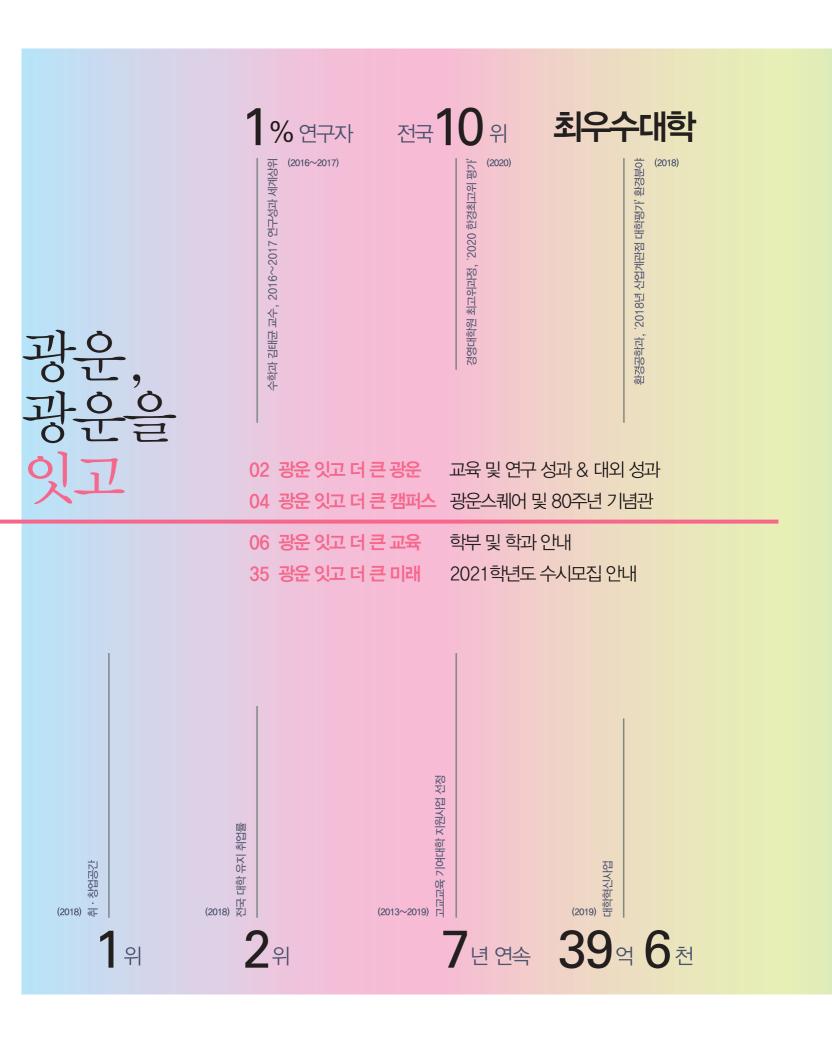
2021학년도 논술우수자 전형 가이드북

광운







최우수대학 182억원

기술이전수입

(2016~2018)

국내341건 국제 44건

540편

(2016~2018)

(2016~2018)

특하등록

SCI/SOUPUS게재 논문 수

정보통신공학과, '2017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정보통신분야

31 2017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선정 정부지원금

30 d

더 큰 광운이 되다

공공기숙사 빛솔재 녹색건축물 인증

최우수

130 q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프로그램형, 종합형)

(2016~2017)

Best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평기

Contents

광운대학교 2021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가이드북

Ι.	2021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세부 안내	1
Π.	논술우수자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4
Ш.	2021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의 방향과 준비(자연계열) —	7
IV.	2020학년도 기출문제 및 해설(자연계열 오전/오후)	11
	기출문제	11
	문제해설 및 모범답안	13
	응시자 답안 첨삭 예시	38
V.	2021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의 방향과 준비(인문계열) —	46
VI.	2020학년도 기출문제 및 해설(인문계열 오전/오후)	51
	기출문제	51
	문제해설 및 모범답안	54
	응시자 답안 첨삭 예시	76
VII.	2020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합격자 합격수기	87
	자연계열	87
	인문계열	91

본 논술우수자전형 가이드북은 세부 계획 확정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서접수 전에 최종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함



🗑 🛘 . 2021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안내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الد		모집인원			
계 열	대학	모집단위	정원 내		
		전자공학과	18		
		전자통신공학과	10		
	전자정보	전자융합공학과	9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9		
		전자재료공학과	9		
		로봇학부	9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	9		
자		소프트웨어학부	10		
연		정보융합학부	9		
	77 - 1 - 11 - 1	건축학과(5년제)	4		
		건축공학과	4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9		
		환경공학과	4		
		수학과	5		
	자연과학 대학	전자바이오물리학과	6		
	-11-7	화학과	6		
	소 계 130				
총계					

계 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열	내역	포입인뒤	정원 내					
		국어국문학과	4					
		영어산업학과	5					
	인문사회 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9					
		산업심리학과	5					
인		동북아문화산업학부	7					
문	정책법학 대학	행정학과	6					
		법학부	13					
		국제학부	4					
	거여대중	경영학부	16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7					
소 계 76								
206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3. 전형방법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다게	Аннио	0 лн	전형요소		
년계 	단계 선발비율 구분		학교생활기록부	논술고사	
	100%	반영비율	30%	70%	
일괄합산	100%	반영점수	300점	700점	

※ 2021학년도부터 논술고사의 비중을 60%에서 70%로 확대함

□ 논술고사 안내

계열	내용	시험시간
자연	 ▶ 수리 논술(2문제) ▶ 각 문제당 5개 내외의 소문제 출제 ▶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용어와 개념을 활용하여 기술한 제시문과 함께 출제 ▶ 출제 대상 교과목 :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통계 	
인문	 통합교과형 논술(2문제) 각 문제당 700자 ~ 1,000자 복수의 제시문을 상호 관련시켜 통합형으로 출제 출제 대상 교과목 : 국어, 화법과작문, 독서, 언어와매체, 문학, 통합사회, 경제, 정치와법,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120분

^{※ 2021}학년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목을 적용함

4. 선발원칙 및 동점자 처리기준

- □ 선발원칙
 - 논술고사(70%)와 학교생활기록부(30%) 성적을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모집인원을 선발함
 - ○논술고사 결시자는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 ○지원자격에 대한 서류심사 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모집인원이 미달하여도 선발하지 않음
-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 논술고사 성적 우위자

○ 2순위 : 학교생활기록부 2학년 성적 우위자

○ 3순위 : 학교생활기록부 3학년(3-1학기) 성적 우위자

※ 1~3위까지 동점일 경우 대상자 모두 선발

5.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학원서 접수	• 2020. 9. 24.(목) 10:00 ~ 9. 28.(월) 17:00	• 인터넷으로만 접수 【http://iphak.kw.ac.kr】
논술고사	 자연계열: 2020, 12, 12,(토) 인문계열: 2020, 12, 13,(일) ※ 논술고사는 지원인원에 따라 계열별로 2∼3회 실시할 수 있음 	 논술고사 장소 및 시간은 고사 3일 전,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고함 ※ 수험생이 직접 확인, 개별통보 없음 ・타 대학 전형일정(면접평가, 논술고사 등)과 중복되는 경우라도 원서접수 취소 및 전형료 환불은불가함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고교 재학생만인정),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미소지자는 응시 불가
합격자 발표	• 2020. 12. 24.(목) 15:00	• 합격자 발표는 본교 입학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iphak.kw.ac.kr】 ※ 수험생이 직접 확인 ※ 입학홈페이지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 유선 연락을 병행할 수 있음

[※] 상세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해당자)는 본교 2021학년도 신입학 수시 모집요강 참조

Ⅲ. 논술우수자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1. 적용대상 및 학년별, 요소별 반영 비율

		학년별 반영비율			요소별 반영비율		
전형명	적용대상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성적	비교과성적	
		1억년	2억년			출결	봉사
논술(논술우수자전형)	2019. 2. 졸업자 ~ 2021. 2. 졸업예정자	20%	40%	40%	80%	10%	10%

^{※ 3}학년은 3-1학기 성적만 반영함

2. 반영 교과 및 점수산출 활용 지표

계열(모집단위)	반영 교과	점수산출 활용지표
자연계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석차등급
인문계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수단위 적용)

3. 교과성적 반영방법

- 가. 반영 교과목 중 지원자가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함
- 나. 석차등급을 점수화하여 반영하며, 이수단위를 적용함
- 다. 반영 교과목

교과구분	반영 교과목
국어	국어, 국어Ⅰ, 국어Ⅱ, 독서, 독서와 문법, 문학,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영어	영어, 영어Ⅰ, 영어Ⅱ,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회화
수학	수학,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사회	사회, 통합사회, 경제, 동아시아사, 세계사, 사회·문화, 법과 정치, 정치와 법, 한국지리, 세계지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사*
과학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 $^{ m I}$, 물리학 $^{ m I}$, 생명과학 $^{ m I}$, 화학 $^{ m I}$, 지구과학 $^{ m I}$

^[*] 한국사 과목은 사회 교과에 포함하여 반영함

[※] 위에 명시된 과목의 반영을 원칙으로 하며, 특이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4.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산출 방법

가. 교과점수(A) 산출 방법

1) 석차등급별 배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점수	100	98	96	94	92	88	80	70	0

2) 학년별 가중치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1학기)
가중치	0.2	0.4	0.4

3) 교과점수(A) 계산식

교과점수(A) =
$$\dfrac{\sum$$
 (반영 교과목 석차등급점수 $imes$ 이수단위 $imes$ 학년별 가중치) \times 0.8 (교과점수 반영비율 80%) Σ (반영 교과목 이수단위 $imes$ 학년별 가중치)

나. 비교과점수(B) 산출 방법

- 1) 1, 2, 3학년의 결석일수를 합산함
- 2) 지각, 조퇴, 결과 3회는 결석 1일로 간주함
- 3) 단, 질병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4) 봉사활동시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것만 인정함

출	·결	봉사		
결석일수	반영 점수(10점 만점)	봉사시간	반영 점수(10점 만점)	
0 ~ 5일	10	20시간 이상	10	
6 ~ 11일	9.5	18 ~ 19시간	9.5	
12 ~ 18일	9	15 ~ 17시간	9	
19 ~ 26일	8.5	12 ~ 14시간	8.5	
27 ~ 35일	8	9 ~ 11시간	8	
36 ~ 46일	7.5	6 ~ 8시간	7.5	
47 ~ 60일	7	3 ~ 5시간	7	
61일 이상	0	3시간 미만	0	

다. 최종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최종 학교생활기록부 점수 【교과점수(A) + 비교과점수(B)】 ÷ 100 × 300
--

라.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산출 불가자 비교내신 처리방법

전형명	비교내신 처리방법	비교내신 적용 대상자
논술 (논술우수자전형)	논술고사 점수활용	

마. 학교생활기록부 비교내신 평가표

논술고사 성적 (700점 만점)	700	672 ~ 699	623 ~ 671	539 ~ 622	420 ~ 538	280 ~ 419	161 ~ 279	77 ~ 160	0 ~ 76
비교내신 점수 (300점 만점)	300	294	288	282	276	264	240	210	0

[※] 논술고사 성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함



Ѿ. 2021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의 방향과 준비(자연계열)

1. 논술고사의 목적

- 가. 고교과정 학업성취도 평가
 -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능력
 - 수학적 개념에 대한 활용능력
 - ○논리적 비약이 없는 풀이서술능력
- 나, 대학학문의 수학능력 평가
 - ○수학적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분석능력
 - ○수학적 사고력 및 논리전개능력
 - 다양한 문제해결능력

2. 논술고사의 형식

- 가. 출제범위: 고등학교 교과 과정
- 나. 출제형식
 - ○문제와 관련된 용어와 정리를 기술한 제시문과 4~6 문항으로 구성
- 다. 출제유형
 - 제시문에 주어진 수학적 개념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 및 선행 문제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

3. 논술고사의 평가기준

- 가. 문제해석능력 :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능력
- 나. 수학적 증명능력 : 문제풀이에 필요한 과정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전개하는 능력
- 다. 수학적 계산능력 : 문제풀이에 필요한 계산과정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능력

4. 논술고사의 유의사항

- 가. 문제의 출제의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 나. 문제풀이 과정을 충분히 기술
- 다. 필요하다면 제시문의 내용이나 이전 문항을 이용하여 풀이 작성
- 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부분적인 풀이과정에 대해 부분점수를 부여

5. 논술고사의 준비

- 가. 기출문제에 대한 출제의도 및 모범답안을 참고하여 반복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
- 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논리의 비약이 없이 서술하는 연습
- 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한 후 문제풀이에 관련된 개념 학습
- 라. 문제풀이 후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풀이과정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는 연습



KwangWoon University



2020학년도 기출문제 및 해설(자연계열)

- 기출문제
- 해설 및 모범답안
- 응시자 답안 첨삭



\mathbb{N} . 2020학년도 기출문제 자연계열(오전)

/ 기출문제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 (50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항별로 풀이와 함께 답하시오.

- 1. 삼각형 ABC에서 두 변의 길이 b,c와 그 끼인각인 \angle A의 크기를 알 때, 삼각형 ABC의 넓이 S는 $S=\frac{1}{2}bc\sin$ A 이다.
- **2.** $a>0,\,b>0$ 일 때, $\frac{a+b}{2} \geq \sqrt{ab}$ 이다. (단, 등호는 a=b일 때 성립한다.)
- 3. 좌표평면 위의 두 점 $\mathbf{P}(x_1,y_1), \mathbf{Q}(x_2,y_2)$ 사이의 거리 $\overline{\mathbf{P}\mathbf{Q}} = \sqrt{(x_2-x_1)^2+(y_2-y_1)^2}$
- **4**. 좌표평면 위의 두 직선 y = mx + n, y = m'x + n'이 서로 수직이면 mm' = -1이다.
- [1] 삼각형 ABC가 다음을 만족한다. (단. x > 0)

$$\angle ABC = 60^{\circ}$$
, $\overline{AB} = \frac{2}{x} + 1$, $\overline{BC} = x + 1$

삼각형 ABC의 넓이의 최솟값을 구하고, 그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10점]

- [2] 자연수 n에 대하여 $x+2y=3^n$ 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의 순서쌍 (x,y)의 개수를 a_n 이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a_1, a_2, a_3 을 구하시오. [6점]
 - (2) a_n 을 구하시오. [8점]
 - (3) $\sum_{n=1}^{99} \log_3(6a_n+3)$ 을 구하시오. [8점]

- [3] 함수 $y = 2^{x+2} + 4$ 의 그래프 위의 두 점 A,B와 함수 $y = 2^x$ 의 그래프 위의 두 점 C,D를 꼭짓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는 정사각형이다. 점 A, B, C, D의 x 좌표를 각각 a, b, c, d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b < a이고 c < d이다.)
 - (1) b를 c로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정사각형 ABCD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8점]
 - (2) d를 c로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c를 구하시오. [10점]

출제의도

- [1] 삼각함수를 사용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이해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넓이 방정식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한다.
- [2]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일반항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한다.
- [3] 정사각형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한다.

자료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기초수학	고호경 외	교학사	2014	247
	수학 I	정상권 외	금성출판사	2014	133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 I	신항균 외	지학사	2014	154
	수학 ॥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14	52, 117, 141
	수학 ॥	김원경 외	비상교육	2014	165, 172



해설 및 답안

문항해설

삼각형, 수열, 정사각형, 지수법칙, 로그 등의 개념은 자연과학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학적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 [1]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이용하여 넓이를 x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절대부등식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 [2] (1)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차례로 구하는 문항이다.
 - (2)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쌍들의 규칙을 도출함으로써 개수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항이다.
 - (3) (2)에서 구한 일반항을 일차함수와 로그를 통해 변형하고 변형된 일반항의 합을 구하는 문항이다.
- [3] (1) 정사각형의 마주보는 대변이 서로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관계식을 도출하고 지수법칙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 (2) 정사각형의 이웃하는 두 변이 서로 수직인 것과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1이 됨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채점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삼각형의 넓이 $S = \frac{\sqrt{3}}{4} \left(3 + x + \frac{2}{x} \right)$ 를 구했으면	3
1	부등식 $S \geq \frac{3\sqrt{3}+2\sqrt{6}}{4}$ 과 넓이의 최솟값을 $\frac{3\sqrt{3}+2\sqrt{6}}{4}$ 을 구했으면	4
	조건 $x = \frac{2}{x}$ 과 $x = \sqrt{2}$ 를 구했으면	3
	첫째항 $a_1=1$ 을 구했으면	2
2-1	둘째항 $a_2=4$ 를 구했으면	2
	세째항 $a_3=13$ 을 구했으면	2
	x가 홀수임을 유도했으면	2
2–2	$x 는 1$ 부터 3^n-2 까지의 홀수임을 또는 $y 는 1 \le y \le \dfrac{3^n-1}{2}$ 인 자연수임을 유도했으면	4
	일반항 $a_n=rac{3^n-1}{2}$ 을 구했으면	2
	$\log_3(6a_n+3)=n+1$ 을 구했으면	4
2–3	$\sum_{n=1}^{99} \log_3(6a_n + 3) = 5049$	4
	$a-b=d-c$ 와 $2^{a+2}-2^{b+2}=2^d-2^c$ 를 유도했으면	2
3-1	b=c-2를 구했으면	4
	정사각형 \mathbf{ABCD} 의 한 변의 길이 $=2\sqrt{5}$ 를 구했으면	2
3–2	직선 CD 의 기울기 $=\frac{1}{2}$ 를 구했으면	2
	$2^d-2^c=rac{d-c}{2}$ 를 유도했으면	2
	d=c+4를 구했으면	3
	$c = \log_2 \frac{2}{15} = 1 - \log_2 15$ 를 구했으면	3

예시답안

[1] 삼각형의 넓이 공식(제시문 1)으로부터 다음을 얻는다.

$$S = \frac{1}{2} \left(\frac{2}{x} + 1 \right) (x+1) \sin 60^{\circ} = \frac{\sqrt{3}}{4} \left(3 + x + \frac{2}{x} \right)$$

이때 x>0이므로 제시문 2로부터 $x+\frac{2}{x}\geq 2\sqrt{x\cdot\frac{2}{x}}=2\sqrt{2}$ 가 성립하므로

$$S \ge \frac{\sqrt{3}}{4}(3+2\sqrt{2}) = \frac{3\sqrt{3}+2\sqrt{6}}{4}$$

따라서 넓이의 최솟값은 $\frac{3\sqrt{3}+2\sqrt{6}}{4}$ 이다.

이때 x의 값은 제시문 2로부터 $x=\frac{2}{x}$ 을 만족한다. $x^2=2$ 이고, x>0이므로 $x=\sqrt{2}$ 이다.

- [2] (1) x+2y=3 에서 x=1 일 때 y=1 이므로 $a_1=1$, x+2y=9 에서 x=1,3,5,7 일 때 y=4,3,2,1 이므로 $a_2=4$, x+2y=27 에서 $x=1,3,5,\cdots,25$ 일 때 $y=13,12,\cdots,1$ 이므로 $a_3=13$ 이다.

 - (3) $\log_3(6a_n+3)$ 에 일반항 a_n 을 대입하면

$$\log_3(6a_n+3) = \log_3\left(\frac{6(3^n-1)}{2}+3\right) = \log_3 3^{n+1} = n+1$$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sum_{n=1}^{99} \log_3(6a_n + 3) = \sum_{n=1}^{99} (n+1) = \sum_{n=1}^{100} n - 1 = \frac{100 \cdot 101}{2} - 1 = 5049$$

[3] (1) $A(a, 2^{a+2}+4)$. $B(b, 2^{b+2}+4)$. $C(c, 2^c)$. $D(d, 2^d)$ 에 대하여 $\overrightarrow{BA} = \overrightarrow{CD}$ 이므로 다음이 성립한다.

$$(a-b, 2^{a+2}-2^{b+2}) = (d-c, 2^d-2^c)$$
$$a-b = d-c \qquad \cdots \cdots \textcircled{1}$$
$$2^{a+2}-2^{b+2} = 2^d-2^c \cdots \cdots \textcircled{2}$$

지수법칙을 사용하여 식 ②를 인수분해하면

$$2^{b+2}(2^{a-b}-1)=2^{c}(2^{d-c}-1)$$

식 ① 에서 $a-b=d-c \neq 0$ 이므로 $2^{a-b}-1=2^{d-c}-1 \neq 0$ 이다.

따라서 $2^{b+2} = 2^c$, b+2=c이다. 즉 b=c-2이다.

위 결과를 이용하여 정사각형 ABCD의 한 변의 길이 \overline{BC}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3)

$$\begin{array}{l} \overline{\mathrm{BC}} = \sqrt{(b-c)^2 + (2^{b+\,2} + 4 - 2^c)^2} = \sqrt{(c-2-c)^2 + (2^c + 4 - 2^c)^2} \\ = \sqrt{4 + 16} = 2\,\sqrt{5} \end{array}$$

(2) 직선 BC의 기울기는
$$\frac{2^c - 2^{b+2} - 4}{c - b} = \frac{2^c - 2^c - 4}{2} = -2$$
이다.

그리고 직선 BC와 직선 CD는 서로 수직이므로 직선 CD의 기울기는 $\frac{1}{2}$ 이다.(제시문 4를 이용)

따라서
$$2^d - 2^c = \frac{d - c}{2}$$
 ③

한편
$$\overline{\rm BC}$$
 = $\overline{\rm CD}$ 이므로
$$(d-c)^2 + \left(\frac{d-c}{2}\right)^2 = 20$$

$$(d-c)^2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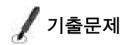
여기서 d-c > 0 이므로 d-c = 4이다. 따라서 d=c+4이다.

식 ③ 에 d = c + 4를 대입하면 $2^{c+4} - 2^c = 2^c(2^4 - 1) = 2$ 이다.

이 식으로부터
$$2^c = \frac{2}{15}$$
 이므로

양변에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 $c = \log_2 \frac{2}{15} = 1 - \log_2 15$ 이다.

\mathbb{N} . 2020학년도 기출문제 자연계열(오전)



문항 및 제시문

[문제 2] (50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항별로 풀이와 함께 답하시오.

- 1.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가능하고, 이 구간의 모든 x에 대하여

 - \bigcirc f'(x) < 0 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
- 2. 함수 f(x)가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frac{d}{dx} \int_{a}^{x} f(t) dt = f(x) \quad (단, \ a < x < b)$$

3. 두 함수 f(x), g(x)가 미분가능하고 f'(x), g'(x)가 연속일 때,

$$\int_{a}^{b} f(x)g'(x) dx = [f(x)g(x)]_{a}^{b} - \int_{a}^{b} f'(x)g(x) dx$$

4. 구간 $[a,\ b]$ 에서 연속인 함수 f(x) 에 대하여, 미분가능한 함수 x=g(t)의 도함수 g'(t)가 구간 $[\alpha,\ \beta]$ 에서 연속이고 $a=g(\alpha),\ b=g(\beta)$ 이면

$$\int_{a}^{b} f(x) dx = \int_{\alpha}^{\beta} f(g(t))g'(t) dt$$

[1] 다항식 $P(x) = \sum_{k=1}^{2020} [\log k] (-x)^k$ 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x] 는 x 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이다.)

- (1) $\int_{1}^{2020} [\log t] dt$ 를 구하시오. [6점]
- (2) 다항식 P(x)의 모든 항의 계수의 합을 구하시오. [6점]
- (3) x < 0 에서 두 곡선 y = P(x) 와 $y = \frac{1}{1+x^2}$ 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8점]

[2] 이차곡선 y = f(x)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 식을 만족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f(x) = -\frac{1}{4} \int_{0}^{x} \frac{t}{f(t)} dt + 1$$

- (1) 이차곡선 위의 점 $\left(\sqrt{3}\,,\,\,\frac{1}{2}\right)$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4점]
- (2) 이차곡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8점]
- [3]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미분가능한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t>0)

(71)
$$f(x) = f(-x)$$

(L)
$$g'(x) = g'(-x), g(0) = 1$$

- (1) $\int_{-t}^{t} f(x)g(x)dx = 2\int_{0}^{t} f(x)dx$ 임을 증명하시오. [10점]
- (2) $\int_{-t}^{t} \frac{2x \sin x}{e^x + 1} dx =$ 구하시오. [8점]

출제의도

- [1] (1) 함수 $[\log x]$ 에 대한 이해와 적분 계산 능력을 평가한다.
 - (2) 다항함수의 모든 계수를 구하는 계산 능력을 평가한다.
 - (3) 함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이해력 및 계산능력을 평가한다.
- [2] (1)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계산능력을 평가한다.
 - (2) 미분과 적분의 관계식의 활용능력을 평가한다.
- [3] (1) y축 대칭인 함수의 성질의 활용능력을 평가한다.
 - (2) 부분적분법의 계산능력을 평가한다.

자료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미적분 I	신항균외 11인	㈜지학사	2016	117, 158
교과서	미적분 ॥	황선욱외 10인	좋은책신사고	2018	150, 152



해설 및 답안

문항해설

- [1] (1) $\log \text{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적분 구간을 나누어서 함수 } [\log x]에 대한 적분을 수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 (2) 다항함수의 모든 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1]의 (1)의 결과를 할용하고 미지수 자리에 1을 대입함 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 (3) 미분을 활용하여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확인하고, 이로부터 두 그래프의 개형 및 위치 관계를 이해하면 교점의 개수를 확정할 수 있다.
- [2] (1) 미분과 적분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기울기에 관한 관계식을 얻어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다.
 - (2) 미분과 적분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얻은 관계식에 부분적분법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 [3] (1) u축 대칭인 함수의 성질과 치환적분을 잘 이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수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 (2) 제시된 적분 문제에 [2]의 (1)의 결과를 적용하여 얻어지는, 간소화된 적분을 부분적분법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채점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구간을 나누어 $[\log t]$ 의 값을 구했으면	3
[1]-(1)	나눈 구간으로 적분을 계산하여 4950을 구했으면	3
[4] (0)	다항함수 $P(x)$ 을 구했으면	4
[1]–(2)	$P(1) = 0 + 2 \cdot 0 + 3 \cdot 1 = 3$ 을 구했으면	2
	x < 0 에서 함수 $P(x)$ 가 감소함을 보였으면	3
[1]-(3)	x < 0 에서 함수 $g(x)$ 는 증가함을 보였으면	3
	$g(-1) = \frac{1}{2} < P(-1)$, $g(0) = 1 > P(0)$ 임을 보였으면	2
	조건식을 미분하여 $f'(x) = -\frac{1}{4} \frac{x}{f(x)}$ 을 구했으면	2
[2]–(1)	접선의 기울기 $-\frac{\sqrt{3}}{2}$ 을 구했으면.	1
	접선의 방정식 $y=-\frac{\sqrt{3}}{2}(x-\sqrt{3})+\frac{1}{2}=-\frac{\sqrt{3}}{2}x+2$ 을 구했으면	1
	$\int_0^x f(t)f'(t)dt = \int_0^x -rac{t}{4}dt$ 으로 표현했으면	2
[2]–(2)	$\int_0^x \! f(t) f'(t) dt = \frac{\{f(x)\}^2}{2} - \frac{1}{2} , \ \int_0^x \! \left(\! -\frac{t}{4} \right) \! dt = -\frac{x^2}{8} \text{을 구했으면}$	5
	$\frac{x^2}{4} + y^2 = 1$ 또는 $y = \pm \sqrt{1 - \frac{x^2}{4}}$ 을 구했으면	1
	$\int_{-t}^{t} f(x)g(x) dx = \int_{-t}^{0} f(x)g(x) dx + \int_{0}^{t} f(x)g(x) dx$	2
[3]–(1)	$\int_{-t}^{0} f(x)g(x) dx = \int_{0}^{t} f(x)g(-x) dx$ 을 보였으면	3
	g'(x) = g'(-x)로부터 $g(x) + g(-x) = 2$ 을 얻으면	3
	$\int_{-t}^{t} f(x)g(x) dx = 2 \int_{0}^{t} f(x) dx $ 을 구했으면	2
[3]–(2)	$f(x) = x \sin x = (-x)\sin(-x) = f(-x)$ 임을 보였으면	3
	$g'(x) = \frac{-2e^x}{(e^x+1)^2} = \frac{-2e^{-x}}{(e^{-x}+1)^2} = g'(-x), \ g(0) = 1$ 임을 보였으면	3
	$2\int_0^t x \sin x dx = -2t \cos t + 2 \sin t \text{임을 보였으면}$	2

예시답안

[1] (1)
$$[\log t] =$$

$$\begin{cases} 0, & 1 \le t < 10 \\ 1, & 10 \le t < 10^2 \\ 2, & 10^2 \le t < 10^3 \end{cases} \text{ 이므로 다음을 얻는다.} \\ 3, & 10^3 \le t \le 2020 \end{cases}$$

$$\int_{1}^{2020} [\log t] \, dt = \int_{1}^{10} 0 \, dx + \int_{10}^{10^2} 1 \, dx + \int_{10^2}^{10^3} 2 \, dt + \int_{10^3}^{2020} 3 \, dt$$
$$= 1(10^2 - 10) + 2(10^3 - 10^2) + 3(2020 - 10^3)$$
$$= 90 + 2 \cdot 900 + 3(2020 - 10^3) = 90 + 1800 + 3060 = 4950$$

- (2) (1)의 풀이에서 $[\log k]$ 에 대한 설명을 이용하면 P(x)는 다음과 같다. $P(x) = (x^{10} x^{11} + \dots x^{99}) + 2(x^{100} x^{101} + \dots x^{999}) + 3(x^{1000} x^{1001} + \dots x^{2019} + x^{2020})$ 그러므로 모든 항의 계수의 합은 $P(1) = 0 + 2 \cdot 0 + 3 \cdot 1 = 3$ 이다.
- (3) P(x)는 연속함수이다. x < 0 에서 -x > 0 이므로

$$P'(x) = \sum_{k=1}^{2020} [\log k](-k)(-x)^{k-1} < 0 \text{ old}.$$

따라서 제시문1에 의해 x < 0 에서 함수 P(x)는 감소한다.

그리고
$$P(-1) = \sum_{k=1}^{2020} [\log k] = 90 + 2 \cdot 900 + 3 \cdot 1021 = 4953, P(0) = 0$$
이다.

$$g(x) = \frac{1}{1+x^2}$$
라 하자. $g(x)$ 는 연속함수이다. $x < 0$ 에서

$$g'(x) = \left(\frac{1}{1+x^2}\right)' = \frac{-2x}{(1+x^2)^2} > 0$$
 이므로 제시문 1에 의해 함수 $g(x)$ 는 증가한다.

그리고
$$g(-1) = \frac{1}{2} < P(-1)$$
, $g(0) = 1 > P(0)$ 이다.

따라서 오직 하나의 교점을 가지므로 교점의 개수는 한 개다.

[2] (1) 조건식을 미분하면 $f'(x) = -\frac{1}{4} \frac{x}{f(x)}$ 이다.

$$\left(\sqrt{3}\,,\,\,\frac{1}{2}\right)$$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rac{\sqrt{3}}{4\cdot\frac{1}{2}}=-\frac{\sqrt{3}}{2}$ 이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frac{\sqrt{3}}{2}(x-\sqrt{3})+\frac{1}{2}=-\frac{\sqrt{3}}{2}x+2$ 이다.

(2) 제시문 2에 의해 $f(x)f'(x) = -\frac{x}{4}$ ①

조건식으로부터 f(0)=1 이고 ①식의 좌변을 제시문 3에 의해 부분적분하면

$$\int_0^x f(t)f'(t) dt = \left[\{ f(t) \}^2 \right]_0^x - \int_0^x f'(t)f(t) dt = \{ f(x) \}^2 - 1 - \int_0^x f'(t)f(t) dt$$

이므로
$$\int_0^x f(t)f'(t)dt = \frac{\{f(x)\}^2}{2} - \frac{1}{2}$$
이다.

한편 ①식의 우변을 적분하면 $\int_0^x \left(-\frac{t}{4}\right) dt = -\frac{x^2}{8}$ 이다.

따라서 ①식의 양변의 적분 결과가 같으므로

$$\frac{\{f(x)\}^2}{2} - \frac{1}{2} = -\frac{x^2}{8}$$
. 그러므로 $\frac{y^2}{2} = -\frac{x^2}{8} + \frac{1}{2}$ 이다.

따라서 이차곡선의 방정식은 $\frac{x^2}{4}+y^2=1$ $\left($ 또는 $y=\pm\sqrt{1-\frac{x^2}{4}}\right)$ 이다.

[3] (1)
$$\int_{-t}^{t} f(x)g(x) \, dx = \int_{-t}^{0} f(x)g(x) \, dx + \int_{0}^{t} f(x)g(x) \, dx$$
 이다.
위 식의 우변 중 $\int_{-t}^{0} f(x)g(x) \, dx$ 에 대하여 구간 $[-t, \ 0]$ 에서의 적분을 $x = -s$ 로 치환하면 $dx = -ds$ 이고 구간 $[0, \ t]$ 에서의 적분으로 바뀐다.(제시문 4) 조건 (7) 를 이용하면
$$\int_{-t}^{0} f(x)g(x) \, dx = -\int_{t}^{0} f(-s)g(-s) \, ds = \int_{0}^{t} f(s)g(-s) \, ds = \int_{0}^{t} f(x)g(-x) \, dx$$
 이다. 따라서
$$\int_{-t}^{t} f(x)g(x) \, dx = \int_{0}^{t} f(x)g(-x) \, dx + \int_{0}^{t} f(x)g(x) \, dx = \int_{0}^{t} f(x)\{g(-x) + g(x)\} \, dx$$
 이다.
조건 (L') 에서 $g'(x) = g'(-x)$ 을 부정적분하면 $g(x) = -g(-x) + C$ 이다. $(C \vdash \mathcal{C}')$ 또한 조건 (L') 의 $g(0) = 1$ 로부터 $C = 2$ 이므로 $g(x) + g(-x) = 2$ 이다.

(2)
$$\int_{-t}^{t} \frac{2x \sin x}{e^x + 1} \, dx = \int_{-t}^{t} (x \sin x) \left(\frac{2}{e^x + 1}\right) dx$$
이다. 위 식의 우변의 적분에서 $f(x) = x \sin x$, $g(x) = \frac{2}{e^x + 1}$ 라 하자.
$$f(x) = x \sin x = (-x) \sin (-x) = f(-x)$$
이므로 함수 $f(x)$ 는 조건 (가)를 만족시킨다.
$$g'(x) = \frac{-2e^x}{(e^x + 1)^2} = \frac{-2e^{-x}}{(e^{-x} + 1)^2} = g'(-x)$$
이고 $g(0) = 1$ 이므로 함수 $g(x)$ 는 조건 (나)를 만족시킨다. (1)의 결과와 제시문 4를 적용하면

$$\int_{-t}^{t} \frac{2x \sin x}{e^x + 1} dx = \int_{-t}^{t} (x \sin x) \left(\frac{2}{e^x + 1}\right) dx = 2 \int_{0}^{t} x \sin x dx = \left[-2x \cos x\right]_{0}^{t} + 2 \int_{0}^{t} \cos x dx dx$$

 $= -2t\cos t + 2\sin t$

Ⅳ. 2020학년도 기출문제 자연계열(오후)

/ 기출문제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 (50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항별로 풀이와 함께 답하시오.

- 1. 모든 정수들의 집합을 ℤ. 모든 실수들의 집합을 ℝ로 나타낸다.
- 2. 다항식 A를 다항식 B $(B \neq 0)$ 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 나머지를 R라고 하면 A = BQ + R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낮다. 특히, R = 0일 때, A는 B로 나누어떨어진다고 한다.
- 3. 원소가 유한개인 집합을 유한집합이라 하고, 원소가 무한히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한다. 자연수의 집합 $\mathbb{N} = \{1, 2, 3, \dots\}$ 은 무한집합이다.
- 4.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 하고, 기호 A-B로 나타낸다.
- 5. 함수 $f: X \rightarrow Y$ 가 일대일함수이고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함수 f를 일대일 대응이라고 한다.
- 6. 두 함수 $f: X \rightarrow W$, $g: W \rightarrow Y$ 의 합성함수 $g \circ f \vdash g \circ f: X \rightarrow Y$, $(g \circ f)(x) = g(f(x))$ 이다.
- 7.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결론을 부정하면 가정에 모순되거나 이미 참이라고 알려진 사실에 모순됨을 유도하여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증명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한다.
- [1] 다항식 $f(x) = \sum_{n=1}^{100} a_n x^n$ 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a_n 은 실수)
 - (1) 다항식 $g(x) = \sum_{n=1}^{5} x^n$ 에 대하여 $f(x) = \{g(x)\}^{20}$ 일 때, $\sum_{n=1}^{50} a_{2n}$ 을 구하시오. [8점]
 - (2) 다항식 f(x) 가 $x^2 + x + 1$ 로 나누어떨어지고, 다음을 만족할 때, a_{100} 을 구하시오. [10점]

$$\sum_{n=1}^{33} a_{3n} = \sum_{n=1}^{33} a_{3n-2} = \sum_{n=1}^{33} a_{3n-1}$$

[2]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 \subset \mathbb{R}$,

 $Y = \{ t \mid -t^2 \le t \le t^2, t \in \mathcal{Q}_+ \} \cap \{ t \mid 0 < t \le 2, t \in \mathcal{Q}_+ \} \subseteq \mathcal{Q}_+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집합 X가 유한집합이면 집합 $\mathbb{R}-X$ 는 무한집합임을 증명하시오. [6점]
- (2) (1) 을 이용하여 집합 $(\mathbb{R}-Y)\cup(\mathbb{R}-\mathbb{Z})$ 가 유한집합 또는 무한집합인지 판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8점]
- [3] 집합 $X = \{t \mid -5 \le t < 8, t \in S\}$ 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함수 $f: X \to X$ 와 $g: X \to X$ 는 일대일함수이고, $g \circ f = g \circ f \circ g$ 를 만족한다. 이때 함수 g 의 역함수 g^{-1} 가 존재함을 증명하고, $g^{-1}(7)$ 을 구하시오. [10점]
 - (2) 집합 X에서 $\mathbb Z$ 로의 일대일 대응인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8점]

출제의도

- [1] (1) 다항식을 구성하는 각 항들의 계수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 및 계산력을 평가한다.
 - (2) 다항식의 나눗셈정리를 이해하고 다항식간의 계산력을 평가한다.
- [2] (1)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에 대한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논리력을 평가한다.
 - (2) 주어진 집합의 원소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계산력과 이 집합이 무한집합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명제를 활용할 수 있는 응용력 및 논리력을 평가한다.
- [3] (1) 합성함수의 이해력 및 계산능력과 역함수의 존재성을 증명할 수 있는 논리력을 평가한다.
 - (2) 두 집합 사이에 일대일대응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능력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논리력을 평가한다.

자료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수학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16	19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Ⅱ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16	21, 50, 74
	수학Ⅱ	이강섭 외	미래엔	2014	19, 74



🥨 해설 및 답안

문항해설

다항식, 집합, 일대일함수, 일대일대응, 합성함수 등의 개념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포함한 모든 분야 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학적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논리력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 [1] (1) 다항식을 구성하는 각 항들의 계수간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답을 유도할 수 있는 문항이다.
 - (2) 다항식의 나눗셈정리를 이해함으로써 답을 유도할 수 있는 문항이다.
- [2] (1)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의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 (2) 주어진 집합의 원소를 구체적으로 구하고 문항 [2]의 (1)을 활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 [3] (1) 합성함수와 일대일대응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항이다.
 - (2) 귀류법과 일대일대응이기 위한 조건을 이해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g(1) = 5, $g(-1) = -1$ 을 구했으면	2
1-1	$f(1) = 5^{20}$, $f(-1) = 1$ 을 구했으면	2
	$\sum_{n=1}^{50} a_{2n} = \frac{1}{2} (5^{20} + 1)$ 을 구했으면	4
	$f(x) = (x^2 + x + 1)Q$ 인 다항식 Q 가 존재함을 언급했으면	2
	$w^3=1$ 을 구했으면	2
1–2	$f(w) = \sum_{n=1}^{33} a_{3n} + \sum_{n=1}^{33} a_{3n-2} w + \sum_{n=1}^{33} a_{3n-1} w^2 + a_{100} w$ 를 구했으면	2
	$f(w)=a_{100}w=0$ 을 구했으면	2
	$a_{100} = 0$ 을 구했으면	2
	ℝ 이 무한집합임을 설명했으면	2
2–1	$\mathbb{R}-X$ 가 유한집합이라 가정했으면	2
	$\mathbb{R} = X \cup (\mathbb{R} - X)$ 이고 X 가 유한집합이므로 \mathbb{R} 은 유한집합임을 유도함으로써 모순을 이끌어냈으면	2
	$Y\cap \mathbb{Z}=\{1,2\}$ 을 구했으면	2
2-2	(1)의 결과에 의하여 $\mathbb{R}-(Y\cap \mathbb{Z})$ 가 무한집합임을 이끌어냈으면	2
2-2	$(\mathbb{R}-Y)\cup(\mathbb{R}-\mathbb{Z})=\mathbb{R}-(Y\cap\mathbb{Z})$ 임을 설명했으면	2
	$(\mathbb{R}-Y)\cup(\mathbb{R}-\mathbb{Z})$ 가 무한집합임을 언급했으면	2
	f(a) = f(g(a))을 구했으면	2
3-1	g(a)=a을 구했으면	2
3-1	$g(X) = X$ 이므로 g 는 일대일 대응이고 g 의 역함수 g^{-1} 가 존재함을 보였으면	3
	$g^{-1}(7) = 7$ 를 구했으면	3
	X 에서 $\mathbb Z$ 로의 일대일 대응 $h: X \to \mathbb Z$ 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h(X) = \mathbb Z$ 를 언급했으면	3
3–2	n(X)=13 을 구했으면	2
	$h(X)$ 는 유한집합이고 $\mathbb Z$ 는 무한집합이므로 모순을 유도했으면	3

예시답안

[1] (1)
$$g(1) = \sum_{n=1}^{5} 1^n = 5$$
 이고 $f(1) = \sum_{n=1}^{100} a_n 1^n = \sum_{n=1}^{100} a_n$ 이다.
$$f(1) = \{g(1)\}^{20} = 5^{20} \text{ 이므로 } \sum_{n=1}^{100} a_n = 5^{20} \text{ 이다.}$$
 한편 $g(-1) = \sum_{n=1}^{5} (-1)^n = -1$ 이고 $f(-1) = \sum_{n=1}^{100} a_n (-1)^n$ 이다.
$$f(-1) = \{g(-1)\}^{20} = 1 \text{ 이므로 } \sum_{n=1}^{100} a_n (-1)^n = 1 \text{ 이다.}$$
 그런데 $2\sum_{n=1}^{50} a_{2n} = \sum_{n=1}^{100} a_n + \sum_{n=1}^{100} a_n (-1)^n = 5^{20} + 1 \text{ 이므로 } \sum_{n=1}^{50} a_{2n} = \frac{1}{2} (5^{20} + 1) \text{ 이다.}$

- (2) 다항식 f(x)가 x^2+x+1 로 나누어떨어지므로 $f(x)=(x^2+x+1)Q$ 인 다항식 Q가 존재한다. $x^2+x+1=0$ 을 만족하는 한 허근을 w라 하면 $w^2+w+1=0$ 이고 f(w)=0 이다. 한편 $w^3-1=(w-1)(w^2+w+1)=0$ 이므로 $w^3=1$ 이다. 따라서 $f(w)=\sum_{n=1}^{100}a_nw^n=(a_3+a_1w+a_2w^2)+(a_6+a_4w+a_5w^2)+\cdots+(a_{99}+a_{97}w+a_{98}w^2)+a_{100}w$ $=\sum_{n=1}^{33}a_{3n}+\sum_{n=1}^{33}a_{3n-2}w+\sum_{n=1}^{33}a_{3n-1}w^2+a_{100}w$ 이고 가정에 의하여 $\sum_{n=1}^{33}a_{3n}=\sum_{n=1}^{33}a_{3n-2}=\sum_{n=1}^{33}a_{3n-1}$ 이므로 $f(w)=\sum_{n=1}^{33}a_{3n}(1+w+w^2)+a_{100}w=a_{100}w$ 이다. f(w)=0 이므로 $a_{100}w=0$ 이고 $w\neq 0$ 이므로 $a_{100}=0$ 이다.
- [2] (1) 제시문 3으로부터 $\mathbb{N}=\{1,2,3,\cdots\}$ 은 무한집합이고 $\mathbb{N}\subset\mathbb{R}$ 이므로 \mathbb{R} 은 무한집합이다. 만일 $\mathbb{R}-X$ 가 유한집합이라 가정하면 $\mathbb{R}=X\cup(\mathbb{R}-X)$ 이고 X가 유한집합이므로 \mathbb{R} 은 유한집합이다. 그런데 이것은 \mathbb{R} 이 무한집합이라는 사실에 모순이다. 따라서 $\mathbb{R}-X$ 는 무한집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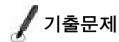
[3] (1) 모든 $a \in X$ 에 대하여 $(g \circ f)(a) = (g \circ f \circ g)(a)$ 이므로 g(f(a)) = g(f(g(a))) 이다. 그런데 g 가 일대일함수이므로 f(a) = f(g(a)) 이다. 또한 f 가 일대일함수이므로 g(a)=a 이고 g(X)=X 이므로 g 는 일대일 대응이고 g 의 역함수 g^{-1} 가 존재한다.

모든 $a \in X$ 에 대하여 g(a) = a 이므로 $g^{-1}(a) = a$ 이다. 따라서 $g^{-1}(7) = 7$ 이다.

(2) 집합 X 에서 \mathbb{Z} 로의 일대일 대응 $h: X \to \mathbb{Z}$ 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h(X) = \mathbb{Z}$ 이다. 그런데 n(X) = 13 이므로 h(X) 는 유한집합이고 \mathbb{Z} 는 무한집합이므로 모순이다. 따라서 $h(X) \neq \mathbb{Z}$ 이므로 h는 일대일 대응이 아니다.

즉, X에서 \mathbb{Z} 로의 일대일 대응인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mathbb{N} . 2020학년도 기출문제 자연계열(오후)



문항 및 제시문

[문제 2] (50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항별로 풀이와 함께 답하시오.

- 1.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가능하고. 이 구간의 모든 x에 대하여
 - $\bigcirc f'(x) > 0$ 이면 곡선 y =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 © f'(x) < 0이면 곡선 y = f(x)는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
- 2.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 ① f''(x) > 0이면 곡선 y = f(x)는 이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하다.
 - ① f''(x) < 0이면 곡선 y = f(x)는 이 구간에서 위로 볼록하다.

곡선 y = f(x) 위의 점 (a, f(a))에 대하여 x = a의 좌우에서 곡선의 볼록 상태가 바뀔 때.

- 이 점을 곡선 y = f(x)의 변곡점이라고 한다.
- **3.** 두 함수 y = f(u), u = g(x)가 미분가능할 때, 합성함수 y = f(g(x))는 미분가능하며, 그 도함수는

$$\frac{dy}{dx} = \frac{dy}{dy} \cdot \frac{du}{dx}$$
 \(\mathref{\text{\frac{dy}{dx}}} \) \(f'(g(x))g'(x) \)

4. (평균값 정리)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가능할 때.

$$\frac{f(b)-f(a)}{b-a}=f'(c)$$
 $(a < c < b)$ 인 c 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5. 두 함수 f(x), g(x)가 미분가능하고, f'(x), g'(x)가 연속일 때

$$\int_{a}^{b} f(x)g'(x) dx = [f(x)g(x)]_{a}^{b} - \int_{a}^{b} f'(x)g(x) dx$$

6. 구간 [a,b]의 임의의 점 x에서 x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가 S(x)인 입체도형의 부피 V는

$$V = \int_a^b S(x) dx$$
 (단, $S(x)$ 는 구간 $[a, b]$ 에서 연속)

- [1] 함수 $f(x) = \sin x x \cos x$ $(-2\pi \le x \le 2\pi)$ 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함수 f(x)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시오. [8점]
 - (2) 구간 $\left(\pi, \frac{3\pi}{9}\right)$ 에서 곡선 y = f(x)의 변곡점이 존재하는지를 판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6점]
 - (3) 함수 $g(x) = (f \circ f)(x)$ 에 대하여 g'(x) = 1을 만족하는 x가 구간 $(\pi, 2\pi)$ 에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이시오. [7점]
- [2]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y=(\ln x)^n$ 과 x축 및 직선 x=e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_n 이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S_1 을 구하시오. [5점]
 - (2) $S_{n+1} + (n+1)S_n$ 을 구하시오. [7점]
 - (3) 곡선 $y = \ln x$ 와 x축 및 직선 x = e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도형을 x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반원일 때, 이 입체의 부피 V를 구하시오. [8점]
- [3]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미분가능한 함수 f(x)와 g(x)를 구하시오. [9점]

(71)
$$e^{x}(f(x)+f'(x))=g(x)$$

(L)
$$\int_{0}^{x} g(t)dt = e^{x^{2}} - f(0)$$

출제의도

- [1] (1) 삼각함수의 합과 몫의 미분에 대한 이해력과 도함수를 활용한 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계산 능력을 평가한다.
 - (2) 이계도함수의 계산능력과 삼각함수의 부호 및 변곡점에 대한 이해력과 논리력을 평가한다.
 - (3) 함수에 대한 평균값 정리와 합성함수의 미분가능성에 대한 이해력과 삼각함수의 계산능력을 평가한다.
- [2] (1) 정적분을 이용한 도형의 넓이의 계산능력과 로그함수의 미분과 정적분에 대한 계산능력을 평가 한다.
 - (2) 합성함수의 미분과 부분적분법을 이용한 정적분에 대한 이해력과 계산능력을 평가한다.
 - (3) 정적분을 이용한 입체도형의 부피의 계산능력을 평가한다.
- [3]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 및 함수의 몫의 미분에 대한 이해력과 지수함수의 미분의 계산능력을 평가한다.

출제근거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미적분 I	황선욱 외	좋은책신사고	2019	101, 161, 164	
	미적분 I	류희찬 외	천재교과서	2019	123, 126, 132	
고등학교 교과서	미적분Ⅱ	황선욱 외	좋은책신사고	2018	34, 83, 107, 157	
	미적분Ⅱ	류희찬 외	천재교과서	2018	40, 42, 119, 186	
	미적분II	우정호 외	동아출판	2016	142, 155, 156	



해설 및 답안

문항해설

함수의 도함수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정적분 등은 모든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수학적 개념이다. 도함수, 함수의 미분가능성과 연속성, 평균값 정리, 함수의 증가와 감소, 이계도함수, 변곡점, 부정적분과 정적분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함수의 여러 가지 미분법과 적분법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다.

- [1] (1)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활용하여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함으로써 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계산할 수 있는 문항이다.
 - (2) 삼각함수의 이계도함수의 부호로 변곡점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는 문항이다.
 - (3) 함수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적용하여 삼각함수의 합성함수의 값을 계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 [2] (1) 정적분을 이용하여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문항이다.
 - (2) 부분적분법을 이용하여 로그함수와 함수 $y = x^n$ 의 합성함수의 정적분을 계산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는 문항이다.
 - (3) 정적분을 이용하여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문항이다.
- [3]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를 이해하고 정적분과 지수함수의 미분을 계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

채점기준

하위문항	채점 기준	배점				
	$f'(x) = x \sin x = 0$ 의 해 $x = 0$, $\pm \pi$, $\pm 2\pi$ 를 구했으면	2				
1-1	함숫값을 비교해서 최대, 최소가 되는 점을 찾았으면					
	최댓값 2π , 최솟값 -2π 를 구했으면					
	$f''(x) = \sin x + x \cos x$ 를 구했으면					
1–2	$\pi < x < rac{3\pi}{2}$ 에서 $f^{\prime\prime}(x) < 0$ 임을 보였으면					
	변곡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으면	2				
	$g(2\pi)=2\pi$, $g(\pi)=\pi$ 를 구했으면	2				
1–3	평균값 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으면	3				
	$g'(x)=1$ 을 만족하는 x 가 $(\pi,2\pi)$ 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였으면	2				
2–1	도형의 넓이 $S_1 = \int_1^e \ln x dx$ 임을 설명했으면					
	$S_1 = 1$ 을 구했으면	3				
	$S_{n+1} = \int_{1}^{e} (\ln x)^{n+1} dx$ 임을 설명했으면					
2–2	부분적분법으로 $\int_1^e (\ln x)^{n+1} dx$ 를 구했으면					
	$S_{n+1}+(n+1)S_n=e$ 를 구했으면	2				
	단면의 넓이 $S(x) = \frac{1}{2}\pi \left(\frac{\ln x}{2}\right)^2$ 을 구했으면	2				
2–3	정적분 $\int_1^e (\ln x)^2 dx$ 를 구했으면					
	부피 $V = \frac{\pi}{8}(e-2)$ 를 구했으면	3				
3	$\int_0^x \left\{e^t f(t)\right\}' dt = \int_0^x g(t) dt$ 임을 설명했으면					
	$f(x) = e^{x^2 - x}$ 을 구했으면					
	$g(x) = 2xe^{x^2}$ 을 구했으면	2				

예시답안

[1] (1) 함수 f(x)는 $(-2\pi, 2\pi)$ 에서 미분가능하며 $f'(x) = x \sin x$ 이다.

따라서 f'(x) = 0의 해는 x = 0. $\pm \pi$. $\pm 2\pi$ 이다.

제시문 1에 의하여 구간 $\left[-2\pi, 2\pi\right]$ 에서 함수 f(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2π	•••	$-\pi$		0	•••	π		2π
f'(x)	0	_	0	+	0	+	0	_	0
f(x)	2π	7	$-\pi$	7	0	7	π	7	-2π

위의 표로부터 f(x)는 $x=-2\pi$ 일 때 최대이고 최댓값은 2π , $x=2\pi$ 일 때 최소이고 최솟값은 -2π 이다.

- (2) f(x)의 이계도함수는 $f''(x) = \sin x + x \cos x$ 이고, $\pi < x < \frac{3\pi}{2}$ 일 때 $\sin x < 0$, $\cos x < 0$ 이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항상 f''(x) < 0이므로 제시문 2에 의하여 변곡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 (3) 함수 f(x)는 미분가능하므로 제시문 3에 의하여 함수 g(x)는 미분가능하다. g(x)는 구간 $\left[\pi,2\pi\right]$ 에서 연속이고 구간 $\left(\pi,2\pi\right)$ 에서 미분가능하므로 평균값 정리(제시문 4)에 의하여

$$\frac{g(2\pi) - g(\pi)}{2\pi - \pi} = g'(c), \quad \pi < c < 2\pi$$

을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 한다.

그런데
$$g(2\pi)=f(f(2\pi))=f(-2\pi)=2\pi$$
, $g(\pi)=f(f(\pi))=f(\pi)=\pi$ 이므로

$$g'(c)=rac{2\pi-\pi}{\pi}=1$$
을 만족하는 c 가 구간 $(\pi,2\pi)$ 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따라서 q'(x) = 1을 만족하는 x가 구간 $(\pi, 2\pi)$ 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2] (1) 제시문 5의 부분적분법에 의하여

$$S_1 = \int_1^e \ln x \, dx = \left[x \ln x \right]_1^e - \int_1^e x \left(\frac{1}{x} \right) \! dx = e - \left[x \right]_1^e = 1$$

(2) 제시문 5의 부분적분법으로 적분을 계산하면

$$\begin{split} S_{n+1} &= \int_{1}^{e} (\ln x)^{n+1} dx = \left[x (\ln x)^{n+1} \right]_{1}^{e} - \int_{1}^{e} (n+1) (\ln x)^{n} dx \\ &= \left[x (\ln x)^{n+1} \right]_{1}^{e} - (n+1) \int_{1}^{e} (\ln x)^{n} dx = e - (n+1) S_{n} \end{split}$$
 따라서 $S_{n+1} + (n+1) S_{n} = e$ 이다.

(3) 입체도형의 단면의 넓이를 S(x)라고 하면, 단면은 지름이 $\ln x$ 인 반원이므로 $S(x) = \frac{1}{2}\pi \left(\frac{\ln x}{2}\right)^2$ 이다. 제시문 6에 의하여 입체도형의 부피 V는 다음과 같다.

$$V = \int_{1}^{e} S(x)dx = \int_{1}^{e} \frac{1}{2} \pi \left(\frac{\ln x}{2}\right)^{2} dx = \frac{\pi}{8} \int_{1}^{e} (\ln x)^{2} dx = \frac{\pi}{8} S_{2}$$

(1)과 (2)에서
$$S_1=1$$
, $S_2+2S_1=e$ 이므로 $S_2=e-2S_1=e-2$ 이다.

따라서 입체의 부피는 $V = \frac{\pi}{8}(e-2)$ 이다.

[3] 조건 (가)에서 $\left\{e^{x}f(x)\right\}'=g(x)$ 이다.

이 식의 양변을 적분하면
$$\int_0^x \left\{e^tf(t)\right\}'dt = \int_0^x g(t)dt$$
이다.

위 식의 좌변은
$$\int_0^x \left\{e^tf(t)\right\}'dt = \left[e^tf(t)\right]_0^x = e^xf(x) - f(0)$$
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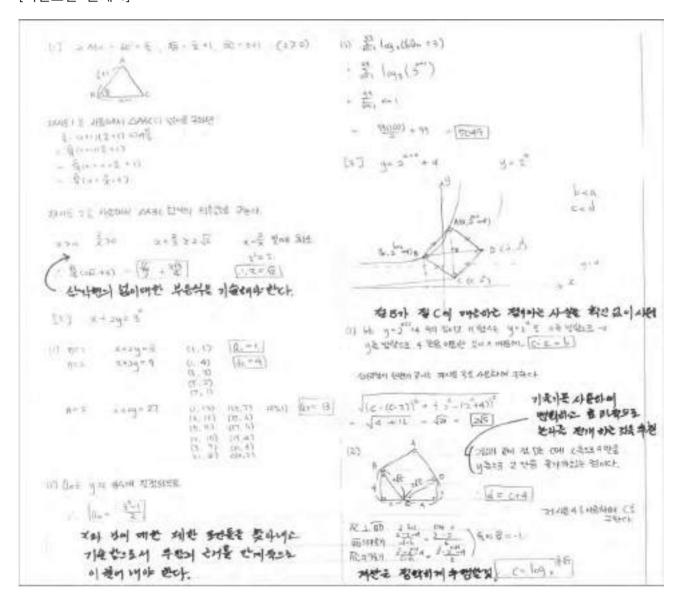
조건 (나)에서
$$e^x f(x) - f(0) = e^{x^2} - f(0)$$
이다.

이 식을 정리하면
$$f(x) = e^{x^2 - x}$$
이다.

조건 (가)로부터
$$g(x) = \{e^x f(x)\}' = (e^{x^2})' = 2xe^{x^2}$$
이다.

11 응시자 답안 첨삭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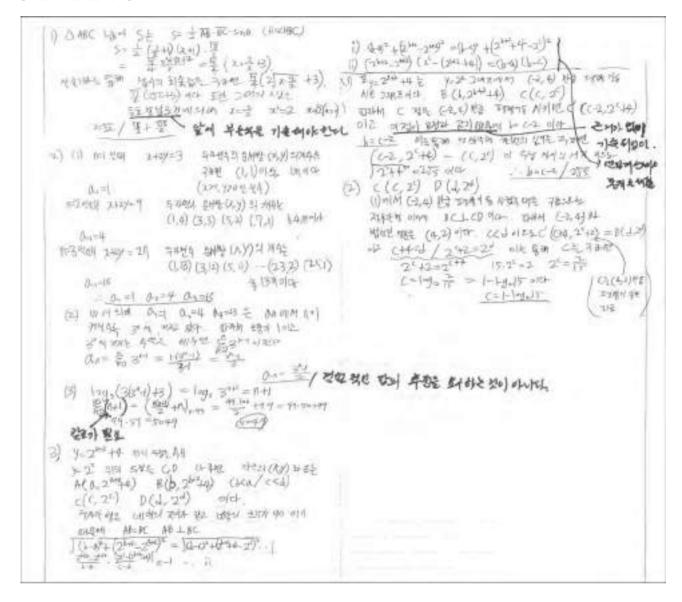
[자연오전-문제 1]



총 평

기본적인 논술답안작성의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답안의 일부에서 논리를 전개할 때 구체적이고 확인된 근거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훈련이 필요해 보인다. 3-[1]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보다 주어진 정사각형의 조건을 사용하여 계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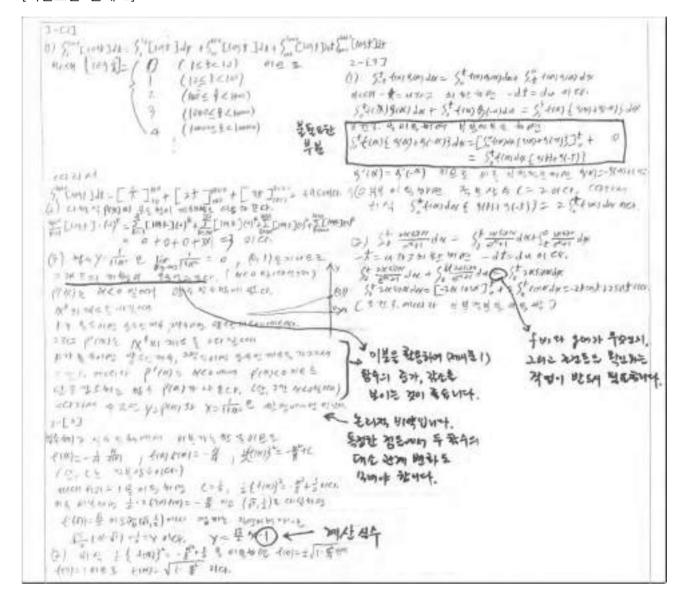
[자연오전-문제 1]



총 평

전반적으로 수학적인 논리 전개능력이 미흡해 보인다. 2[2]에서는 연역적인 추론을 요구하 고 있는데 경헙적으로 답을 추정하기만 하였다. x와y에대한 제한조건을 이용하여 추정한 답이 참임을 입증해야 한다. 3에서는 정사각형의 조건을 계산해서 (i)과(ii)의 결과를 얻었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 그래프의 평행이동을 이용하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유도하였다. 여기서는 (i),(ii)의 연립방정식을 계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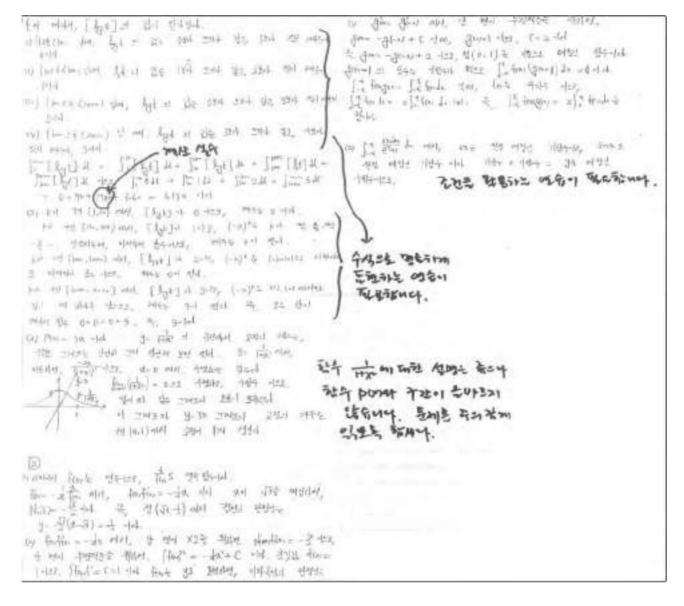
[자연오전-문제 2]



총 평

논리적 비약이 군데군데 눈에 띄입니다. 다음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작업이 빠져있 다든지, 단순주장은 좋은 논증이 아닙니다. 다만 수학적 표현력은 좋아 보입니다. 계산실수와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좀 더 깔끔하게 답안을 작성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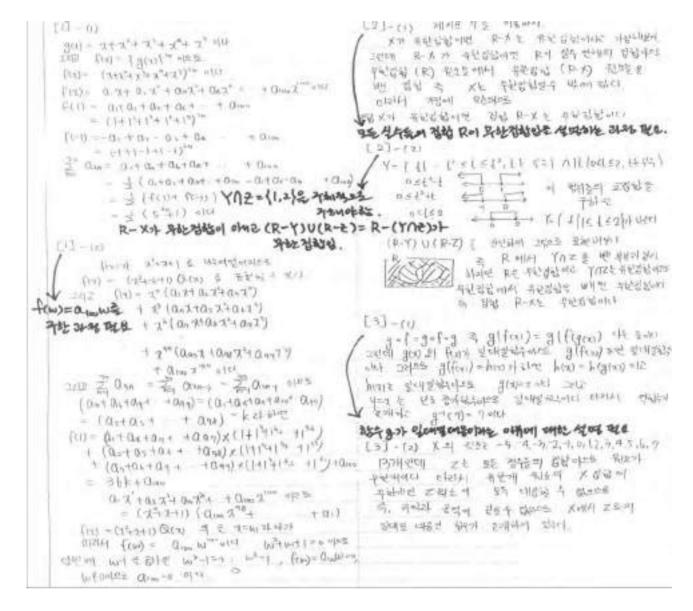
[자연오전-문제 2]



총 평

답안작성은 설명과정이라기 보다 논증입니다. 따라서 많은 설명을 수식으로 명료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계산실수나 문제를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연오후-문제 1]



총 평

전반적으로 수학적인 논리의 전개에 큰 무리가 없이 잘 기술한 답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리논술의 답안지 작성이므로 학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생략한 과정을 좀 더 첨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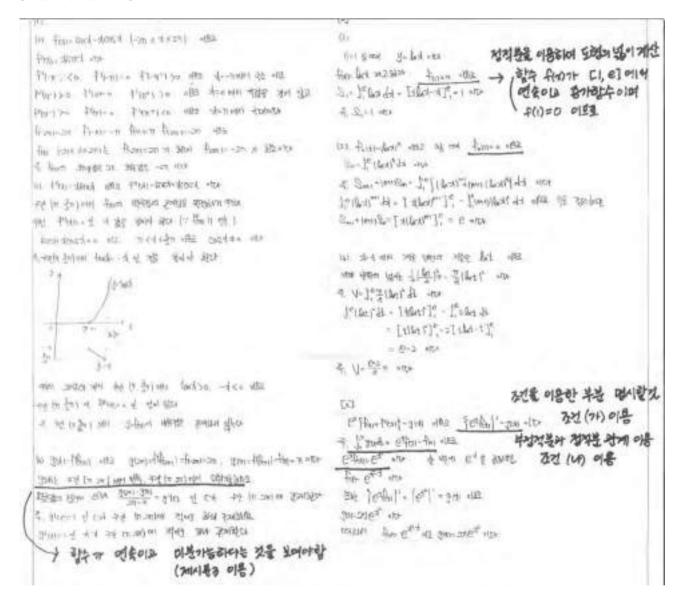
[자연오후-문제 1]

```
i \, \mathcal{O}_{(0)} \, g^{1+\varepsilon}
                                                                                                                                                                                                                                1915年 1915日 イモリー (14)
ELS-ET FARE CLERK BAR - HER'S
                                                                                                                                                                                                                                     OI-100mH 또는 부단점함이므로 ' 무슨 100ml 문1의
                                HALL X-4X-CHARLES
                                                                                                                                                                                                                                                            생대생 어떻는 행사는 후에 높이 되어 -
 for in the state of the second
                                                                                                    - and + and - far - and - and - 2 - 32
  other has a day to any the
 THE WALL STREET, STREET STREET, STREET
   constituting \alpha_1 \ll \alpha_2 \ll \rho \mod 2 , where \beta = 0.02
   \sum_{i=1}^{2n} G_{i+1} = \pm \pm \Delta_i + \Delta
  Ann +2 12 12 12 0 - 0 - 4 6 4 - - 4 0 44 = 5 44 - 25 0 4 1 5 14 1 (0.48 4
 Contar and one many of the contact of the first
                                                                                                                                                                                                                                              1-(1) 100ma 2000年 本是至小社
 a fun tilentamen
            1-(2) f(1)=3Q(1)の世長
                                                                                                                                                                                                                                                                          Q (n= a+++++++aq = 0)249
   \tilde{\ell}(x) = (0, x + \mu_{\alpha} x^{\beta} + \mu_{\alpha} x^{\beta} + \dots + \mu_{\alpha \alpha \alpha} x^{\beta+\alpha})
                                                                                                                                                                                                                                                                           观象是 叫龙山色 田庵.
   see the engine for = A - + A + O + O - + - FO and there
           CONTRACTOR - 5 (0.+ 0. + Corder + + Cops) + Cops
              テロア 3 G(1) ·(上) 切けい の、+Du+1のn+0m+ +On+ サロカル サレ 2-(1) 9元 七午会 2 替称 尺川
                                                                                                                                                                                                                                                                             अधियाम दिश्वाद अधियात.
   "- Fred Green Git + But + Aux" + Aux" + - Aux ATT - TO
    ites - 12 4 2 + 17 Gray Hopely agreed that - 12 new
                                                                                                                                                                                                                                   2-(*) 점帖 Y는 나찬 점심이 이시고 무찬 점站.
  HE TELTON THESE DETERMINED BONTE OF ELYCON
                                                                                                                                                                                                                                              为一(1) 物与当外 整确非确语的对处
      · (fi
                                                                                                                                                                                                                                                                                  아들이 따라 선명 편요.
 SKT - 보는 구위성 및 당시에 대통하시 되는 입합니다(안 보고도 시키크
                                    (4) なかのます また kーメル ながわり かんかっくり はま なかりがらない 一致の なってき まずるからない
             10
                                                                                                                                                                                                                                                3-(2) 对好火色子加州此子约年明
                                                                                                                                                                                                                                                                                   oland out ん: X→との をみなり
                                          1 4% 1/10-11-
                                                                                                                                                                                                                                                                                    0652 मामारा प्रामा पाध प्राम प्रत
   opening rather mount, that was not they are that the Reach No. 10.
    OFFICE OF STREET STREET
                化分配的工作 随者一般 有於如衛的口 有前 四十十二 南部 有節的門
    智力 医皮牙 拘 被 株 预防性 电阻点计
    かい ホーナンシノムーのと 共元 かないがら
  01-11 gat - 10f - 2
                                      giford giftsheat y was toon figure on
     or or grain the grain prop his because with the stays
    ATTENDED TO SET STATE OF BOOK
```

총 평

전반적으로 수학적인 논리의 전개에 무리가 있으며 답안 작성하는 방법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답안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리논술의 답안지 작성이므로 학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생략한 과정을 좀 더 첨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연오후-문제 2]



총 평

- -전반적으로 함수와 도함수의 개념과 함수의 미분과 적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음
- -논술 답안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능력이 있으나, 자세히 서술할 필요가 있음
- -문항[1]-(3)에서 합성함수가 미분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야 함
- -문항[2]에서 함수의 정적분을 이용하기 위한 함수의 조건을 확인해야 함
- -문항[3]의 풀이과정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한 부분을 써야함

[자연오후-문제 2]



총 평

- 주어진 제시문과 문제의 조건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완해야 함
- 논술답안을 작성하는 기본적인 능력은 있으나. 풀이과정에서 아래내용이 필요함
- 문항[1]-(3)에서 합성함수의 미분가능성을 확인하고, 평균값 정리를 적용해야 함
- 문항[2]-(2)에서 부분 적분법을 이용하여 정적분 계산을 해야 함
- 문항[2]-(3)에서 정적분 값을 정확히 계산해야 함
- 문항[3]에서 풀이 과정을 자세히 쓰고,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함수를 구해야 함



● V. 2021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의 방향과 준비(인문계열)

1. 논술고사의 목적

- 가. 미래지향성과 개방적 사고력 평가
 -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변화 추세에 대처할 수 있는 진취적인 사고력
 -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지식을 선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능동성과 주체성
 - 기존 학문 영역의 경계를 과감하게 넘나드는 개방적 자세와 통합적 사고력
- 나.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 평가
 -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초 교과지식 및 원리를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능력
 - 서로 다른 여러 분야의 지식에 대한 학습자 주도적 지식 함양 수준
 -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분석적/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여 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창의력과 통합 능력
- 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 능력 평가
 -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논리적으로 말하기. 논리적으로 글쓰기 능력
 -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과 활용력, 정확한 우리말 어법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
 - 풍부한 어휘 구사력과 적절한 표현력

2. 논술고사의 형식

- 가. 출제범위 : 고등학교 교과 과정
- 나. 출제형식 : 복수의 제시문을 상호 관련시켜 통합형으로 출제
- 다 출제유형
 - ○분석 논술형 : 제시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요인과 변수들을 선별해 내어 명료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
 - 설명 논술형 : 제시문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
 - ○비판 논술형 : 제시문에서 드러난 입장이나 주장의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해 논거를 들어 설득력 있게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
 - ○해석 논술형 : 제시문의 논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그 대상의 의미나 성격에 대해 다른 형태로 풀어 쓸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
 - ○종합 논술형 : 두 개 이상의 제시문의 내용을 종합하여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
 - ○복합 논술형 : 위에서 언급한 분석·설명·비판·해석·종합 능력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능력을 복합적으로 측정하는 문제

3. 논술고사의 평가기준

- 가. 제시문 내용에 대한 이해력
 - 제시하고 있는 개념, 상황, 맥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
 - ○핵심 개념, 주장, 근거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 사고력
- 나. 논리적 비판 능력
 - 자료와 근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 능력
 - ○서로 다른 주장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논리적 구분 능력
 - 구체적 사례와 일반적 주장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 평가 능력
 -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논리적 구성력
- 다. 문제해결 능력
 - ○문제해결 방안의 창의성
 - ○주장의 논리성
 - 융합적 사고력과 기존 학문 경계에 대한 도전 정신의 수준
- 라. 의사표현 능력
 - 주장의 일관성과 설득력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의 명료성

4. 논술고사의 유의사항

- 가.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것
 - 제시문과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답안을 작성할 것
 - 제시문이 여러 개일 경우 그 관계(유사, 대립, 비교, 예시, 상보 등)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답안을 구성할 것
 - ○답안 작성시 주어진 제시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했음을 드러낼 것
- 나. 제시문의 정보에 근거하여 답안을 작성할 것
 -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 외에 자신의 상식과 지식을 중언부언하지 말 것
 - 제시문을 통해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도록 할 것
 - 각 제시문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정보를 활용할 것
 - ※ 특정 제시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을 경우 감점 요인이 됨
- 다.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답안을 작성할 것
 - 요구된 답안의 분량보다 과도하게 적거나 많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논리적인 비약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지 말 것
 - 내용 이해에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오는 비문과 오문을 쓰지 않도록 주의할 것

5. 논술고사의 준비

- 가. 풍부하고 다양한 독서 경험의 축적
 - ○고등학교 교과서 지문뿐만 아니라 교과내용의 심화학습 혹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다양한 글들을 찾아서 읽어볼 것
 - 고전 명저.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교양서. 시사·교양 간행물의 보도·분석기사 등 다양한 읽을 거리들을 폭넓게 접할 것
 -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을 때 그 핵심적 요지를 파악하여 요약·정리하는 습관을 기를 것
- 나. 단편적 지식보다는 폭넓은 이해력과 사고력 함양
 - ○지식과 정보에 대한 단편적인 암기보다는 그 내용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여러 가지 사물과 현상들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폭넓은 사고력을 기르도록 노력할 것
 - 하나의 대상이 지닌 서로 다른 측면, 서로 다른 대상들 간의 상호 관계를 생각해보는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 볼 것
- 다. 꾸준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한 글쓰기 실력 배양
 -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을 기르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
 - 평소에 논술의 모범이 될 만한 양서와 명문을 많이 읽고, 다양한 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논술 하는 연습을 반복할 것
 - ○기출문제, 출제의도 등 공개된 자료를 통해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논술고사 경향에 대해 숙지하고 이에 대비할 것

KwangWoo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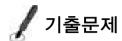
VI

2020학년도 기출문제 및 해설(인문계열)

- 기출문제
- 해설 및 모범답안
- 응시자 답안 첨삭 예시



Ⅳ. 2020학년도 기출문제 인문계열(오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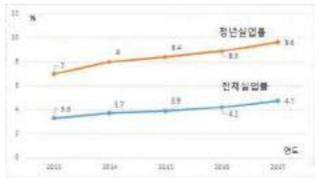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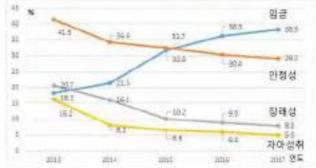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 ①을 (가)의 내용과 [표 1], [표 2]를 연관지어 설명하고, ①을 (나)의 두 관점을 활용하여 서술한 다음, ©에 대한 (다)의 남편과 아내의 입장을 (라)의 두 가지 핵심 개념을 근거로 논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최근 A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청년 실업의 증가이다. 그 원인에는 경기 침체와고용 불안정도 있겠지만, ① 주된 원인은 청년층이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고학력자가 대부분인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사회적·국가적으로 고급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구직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면 해결되는 문제도 있다. 가령 지금도 많은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다는 이유로 청년층으로부터 기피되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청년들의 3D(Dirty, Difficult, Dangerous) 관련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인해 A국 기간산업의 기초 기능과 기술에 공백이 초래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자리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년들은 ② 직업이 가지는 개인적·사회적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⑤ 직업적인 성공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 번 성찰해 보아야 한다.





[표 1] A국의 실업률 변화

[표 2] A국 청년층의 직업 선택 이유 변화

(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행복은 인간 삶의 목적으로서 완전하고 자족적인 어떤 것이며 행위를 통해 성취 할 수 있는 것들의 목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을 이성(理性)을 동반하는 영혼의 활동과 행위로 규정한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의 기능은 이것들을 잘 그리고 훌륭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한 다. 잘 먹고 잘 행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 결국 행복은 인간 삶의 목표로서 한 인간이 인 간으로서 실현해야 할 기능이나 본성을 잘 실현하거나 발휘하는 상태 혹은 활동이다.

맹자에 따르면 백성들은 일정한 생업이 없어지면 그로 인해 일정한 마음도 없어지게 마련이다. 백성들 은 일정한 마음이 없어지면 방자하고 치우치고 사치스러운 짓을 하게 되어 사회에 해악을 주는 죄를 짓 게 된다. 백성들이 생업을 유지하면 위로는 부모를 충분히 모시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충분히 보살필 수 있게 되고 풍년에는 종신토록 배불리 먹고 흉년이 들어도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백성 들은 스스로 선을 행한다. 백성들이 생업을 유지하면 일정한 마음이 생겨 선을 행하기 쉬운 것이다.

(다)

- "당신은 밤낮없이 글을 읽는데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아내의 질책에 남편은 여전히 책에 시선을 둔 채 가볍게 대꾸했다.
- "공부가 미숙하기 때문이오."
- "그럼 장사라도 하여 먹고 살아야지요."
- "장사는 밑천이 없으니 어찌하겠소."
- "그럼 공장 일이라도 하시지요."
- "공장 일은 기술이 없으니 어찌하겠소."
- "당신은 주야로 독서하더니 배운 것이 고작 어찌하겠소 타령입니까? 사람은 생명이 있은 다음에야 무 엇이든 할 수 있는 법인데 이제 우리는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도리를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남들처럼 번듯하게 살아보겠습니까?"
- "십 년을 기약했는데 이제 칠 년밖에 되지 않았거늘 나더러 뭘 하라는 거요? 나라를 위해 보람된 일을 하려면 더 준비가 필요하다오."

(라)

사람들은 경제적 부, 명예나 권력과 같은 외재적 가치를 직업적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다. 많은 부를 쌓고 풍요롭게 생활하는 사람을 직업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직업을 가짐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 경제력은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명예나 권력을 직업적 성공의 기준으로 보기도 한다.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거나 여러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직업적 성공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명예나 권력도 개인의 자부심이나 사회적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면에서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직업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부, 명예나 권력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직업적 성공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직업을 통해 경제적 부, 명예나 권력을 성취하였지만 직업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진정한 직업적 성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김순권 박사는 농학자라는 직업에 매진함으로써 우수한 옥수수 품종을 개발했고 그 결과 자국민뿐 아니라 전 인류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기성취나 자아실현,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람과 만족감과 같은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였기때문이다. 이처럼 직업적 성공은 개인적 차원의 성취와 더불어 이웃이나 국가, 나아가 인류에 기여할 때도덕적 의미를 갖는다. 직업을 통한 개인의 성취는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자산이다.

출제의도

- 최근 우리나라는 경기침체, 일자리 부족, 고영불안정 등으로 인해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는 심각한 경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고학력 청년 실업률의 증가는 사회 국가적으로 많은 폐해와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청년 실업의 증가는 청년증이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직업 선택에서 임금을 중시하는 경향성의 증가는 중소기업 취업회피와 같은 현상으로 이어져 건전한 산업 구조의 구축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시점에서 청년 실업의 원인과 실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직업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뿐 아니라 직업적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직업의 사회적 개인적가치와 직업 윤리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본 문제는 고등학교 사회 과목과 윤리 과목인 사회문화,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창년 실업 현상과 그 문제점, 직업의 의미와 직업적성공의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논제로 삼아 학생들의 논술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출제했다.

자료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사회문화	강운선외 5명	미래엔	2014	132- 133	제시문 (가)	0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미래엔	2014	140	제시문 (가)	0
고등학교 사회	박윤진 외 5명	지학사	2014	108–109	제시문 (가)	0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남궁달화 외	교학사	2014	210-211	제시문 (나)	0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금성출판사	2014	65	제시문 (나)	0
고등학교 국어 II		지학사	2014	52	제시문 (다)	0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11명	미래엔	2014	213-215	제시문 (라)	0



해설 및 답안

문항해설

- 본 문제의 취지는 청년 실업률의 증가 현상을 (가)의 내용과 두 개의 표 (실업률 변화를 나타낸 표와 청년층의 직업 선택 이유 변화를 나타낸 표)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직업의 개인적·사회적 의미에 대한 두 관점을 (나)의 아리스토텔레스와 맹자의 사상을 각각 활용하여 서술한 다음, 직업적 성공의 가치 기준에 대한 (다)의 남편과 아내의 입장을 (라)의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라는 핵심 개념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 (가)는 청년 실업률의 증가를 보여 주는 도표와 청년층의 직업 선택의 이유 변화를 나타내는 도표, 청년 실업 현상의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맹자의 사상을 통해 개인 삶의 행복과 사회적 건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다)는 일정한 직업도 없이 가계 부양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불평과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자 준비 중인 남편의 대화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직업적 성공의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대비시켜 서술하고 있다.
- 이 문제는 제시문 각각의 핵심 논지를 이해하고 서술하는 능력. (가)의 도표를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서술하는 능력, 각각 (가)와 (나), (다)와 (라)의 핵심 내용을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논술하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채점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및 배점

- ① (가)의 내용과 표1, 표2를 연관지어 (가)의 밑줄 친 A국의 청년 실업 증가의 원인을 적절하게 서술했을 경우 최대 **10점**
 - A국의 청년 실업률의 5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같은 기간에 청년층의 직업 선택 이유 중 안정성, 장래성, 자아성취는 줄어들고 있으나 임금을 직업 선택의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증가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음을 적절하게 서술해야 함. 또한 낮은 임금을 이유로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것이 청년실업률 증가에 일조함을 서술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
 - 모범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청년 실업률, 직업 선택의 이유, 수입 또는 유사 및 관련 단어
- ② (가)의 밑줄 친 직업이 가지는 개인적·사회적 의미를 (나)에서 각각 아리스토텔레스와 맹자의 사상과 연결하여 적절하게 서술했을 경우 최대 <u>20점</u>
 - (나)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직업에서의 탁월한 수행과 자아의 성취가 곧 개인의 행복한 삶을 이끄는 원천이라는 점을 직업의 개인적 의미로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10점**
 - (나)에서 백성에게 일정한 직업이 없으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맹자의 사상을 활용하여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10점**
 - 모범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아리스토텔레스, 행복, 맹자, 생업, 일정한 마음, 사회적 해악과 죄 또는 유사 및 관련 단어
- ③ 직업적 성공에 대한 (다)의 아내와 남편의 입장을 서술하고 (라)의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의 개념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서술했을 경우 최대 **15점**
 - (다)에서 아내와 남편의 대화 내용 중 생계와 경제적 필요를 강조하는 아내의 입장과 사회적 기여를 위한 직업 선택을 강조하는 남편의 입장을 적절하게 풀어서 서술하면 최대 5점
 - (라)의 내용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 명예와 권력이라는 외재적 가치를 직업적 성공의 준거로 보는 아내의 입장과 사회와 인류에의 기여와 이를 통한 자아실현과 자아성취 라는 내재적 가치를 직업적 성공의 기준으로 보는 남편의 관점을 대비시켜 적절하게 서술하면 최대 10점
 - 모범답안의 <u>세 번째</u> 단락 참조
 - Key Words: 내재적 가치, 사회적 기여, 자아실현, 자아성취, 외재적 가치, 경제적 부, 명예, 권력, 직업적 성공 또는 유사 및 관련 단어
- ④ 비문이 없고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경우 최대 <u>5점</u>

〈유의 사항〉

- ① 총 글자 수 600~699자는 5점 감점 총 글자 수 500~599자는 10점 감점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20점 감점
- ②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예시답안

(가)의 표1에서 A국의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표2에서 청년층의 직업 선택 이유 중 안정성, 장래성, 자아성취는 감소하지만 임금을 직업 선택의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증가한 것에 원인이 있다. 낮은 임금을 이유로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것이 청년실업률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자신의 기능이나 본성을 훌륭하게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개인 삶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주장한다. 직업에서의 탁월한 수행과 자아의 성취가 곧 개인의 행복한 삶을 이끄는 원천이라는 것이다. 한편 (나)에서 맹자는 백성에게 일정한 직업이 없으면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처럼 직업은 개인 삶의 행복과 사회·경제적 건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요 활동이다.

(다)에서 남편은 직업 활동을 통해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보람된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지만 아내는 직업도 없이 가정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불만을 표출한다. 아내의 입장은 (라)의 외재적 가치와 일맥상통한다. 외재적 가치란 사람들이 직업적 성공의 지표로 삼는 경제적 부, 명성과 영향력을 의미한다. 반면에 남편의 입장은 (라)의 내재적 가치와 일치하는데 이는 직업 활동에서국가와 인류에 기여하는 성취를 이름으로써 얻는 자아실현, 보람과 만족감이다. 직업에서 추구하는 부, 명예, 권력이라는 외재적 가치를 간과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기여를 통한 자아성취라는 내재적 가치를 직업적 성공의 본원적인 준거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 (792자)

Ⅳ. 2020학년도 기출문제 인문계열(오전)

문항 및 제시문

[문제 2] ①에 대하여 ②의 관점에서 ⑤의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한 다음,(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⑤을 설명하고. (라)의 내용을 활용하여 그 문제점을 밝히시오. (50점. 750±50자)

(가)

이 소설은 기괴한 상상력을 통해 현대인이 경험할 수 있는 ① **삶의 부조리함**을 섬뜩하리만치 실감나 게고발하는 작품이다. 주인공 ① 그레고르는 성실하고 인정받는 회사원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이동생으로 구성된 가족의 생계를 홀로 도맡아 부양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고는 자신이 징그러운 벌레로 변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레고르가 더 이상 직장 생활 은커녕 외출조차 하지 못하게 되자, 가족들도 제각기 직업 활동에 나서게 되어 아버지는 어느 은행 수 위로, 어머니는 바느질 품팔이로, 누이동생은 여점원으로 일하게 된다. 비록 겉모습은 벌레로 변해버렸 지만, 그레고르의 내면세계는 예전과 변함없이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선량한 자의식을 그대 로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벌레가 되어버린 그레고르를 더 이상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 하지 않고, 차츰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저해하는 혐오와 기피의 대상으로 취급하게 된다. 가족에게 경제 적 도움을 주고 있었을 때 그는 사랑받는 아들이자 오빠였지만, 이제 그는 가족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 는 해충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만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 상심한 그레고르가 마침내 방 한 구석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자. 그의 가족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홀가분하게 야외로 산책을 하고 평화로운 가정의 분위기를 되찾게 된다.

(나)

한편으로는 어리석고, 의미 없고, 하찮고, 못됐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니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해만 끼치는 그런 노파가 있어. 그 노파의 삶은 하찮은 벌레의 삶보다 나을 것이 없고,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하다고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 노파는 악덕 고리대금업으로 막대한 재산을 벌어들이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는 해로운 존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면 좌절하고 말 싱싱한 젊 은이들이 어디에나 널려 있지. 노파의 돈만 있다면 수백. 수천 가지의 선한 사업과 계획들이 실현될 수 있어. 어쩌면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수십 가정들이 극빈과 분열, 파멸과 타 락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노파로부터 빼앗은 돈의 도움을 받아 훗날 전 인류와 공공 의 사업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노파를 죽이고 돈을 빼앗는다면, 그 작은 범죄 하 나가 수천 가지 선한 일로 보상될 수는 없는 걸까? 한 사람의 생명 덕분에 수천 명의 삶이 파멸과 분열 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고, 한 사람의 죽음과 수백 명의 생명이 교환되는 셈인데, 이건 © 간단한 계산 아닌가! 그 허약하고 어리석고 사악한 노파의 삶이 사회 전체의 무게에 비해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

(다)

우리는 자신을 완전히 독립적인 자아로 볼 수 있는가?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혼자서 는 절대로 선을 추구할 수도. 선행을 할 수도 없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이고. 누군가의 사촌이 거나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나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아니면 저 조합의 회원이다. 나는 이 친족, 이 부족, 이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나에게 좋은 것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누구에게나 좋아야 한다. 이러한 역할의 담지자로서 나는 나의 가족, 나의 도시, 나의 민족, 나의 국가로부터 다양한 부담과 유 산, 정당한 기대와 책무를 떠맡게 된다. 이는 내 삶의 기정사실이자 도덕의 출발점이며, 내 삶에 도덕적 특 수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 삶의 이야기는 언제나 내 정체성이 형성된 공동체의 이야기에 속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에서 가정하는 '원자적 개인', '고립된 자아', '이기적 개인들 간의 계약으로서의 사회' 라는 개념은 허상에 불과하다. 자유주의는 공동체를 수단적 지위에 머물게 하고, 공동체의 전통을 거부 하며,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덕목을 폄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개인이란 있을 수 없다. 개인은 전체 속에서만 존재 가치를 지닌다. 개인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공동체 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

인간이 홀로 남겨진 존재라는 것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찾아온 어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 아 혼자 살고 있었고, 형은 독일의 프랑스 침공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청년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군에 가담하고 싶었지만, 형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빠진 어머니를 홀로 남겨둔 채 떠나기 어려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국민으로서의 의무, 개인적 도덕과 공동체 적 도덕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실존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조언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네는 자유로운 존재라네. 그러니 선택하게."

그 어떤 일반적인 도덕도 각자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지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철저하게 홀로 내던져진 존재입니다. 삶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는 전적으로 그의 자유입니다. 물론 그 선택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온전히 그의 몫이겠지요.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실존주의는 대중 사회에서 주체성을 상실하고 획일화되어가 는 우리의 삶을 반성함으로써 각자가 주체적이고 개성 있는 삶의 주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주 장합니다. 물질적 생산성만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거대한 관료주의적 통제 시스템 이 되어버린 현대 정치체제는 사람들에게 획일적이고 몰개성적인 삶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개 인은 제각기 고유한 가치와 개성을 지니고 태어난 독특한 존재임에도, 현대 대중 사회의 일원으로 훈육 되는 과정에서 마치 거대한 체제의 규격화된 부속품처럼 소외된 존재로 살아갈 것을 도덕과 윤리의 이 름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년기부터 우리를 길러낸 가정과 학교마저도 이러한 현대 사회의 획일주의적 이데올로기로부 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일평생 내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해 온 가족과 사회로부터 헌신짝처 럼 버림받는다면, 그리하여 요람에서부터 내가 믿고 따랐던 도덕과 윤리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 음을,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면, 그 배신감과 회한은 얼마나 클까요?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② **이 철학적 사상**은 개인의 존재 의미가 상실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과연 개별 인간의 삶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각자가 스스로에게 던질 것 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출제의도

- 이 문항의 주된 출제 의도는 교과서에 나오는 철학적 사상과 고전문학작품을 연관지어 파악하는 이해 력 및 사고력과, 그것을 실제 자신의 삶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성찰적 능력을 배양하고 훈련하며, 그 러한 측면에서 학생들의 능력을 판별하고 평가하는 데 있다.
- 이 문항에서는 실존주의와 공동체주의라는 두 가지 주된 철학적 사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철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적 세계관과 생활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삶의 본질적 의미를 묻는 실존주의적 물 음을 제기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사고력과 반성 능력을 기를 필요 가 있다. 둘째, 공동체주의가 사회통합 측면에서 지니고 있는 다양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사상도 반성 능력과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극단적으로 흐 를 경우 사회악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이 문항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과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과 같은 고전 명작소설을 접하 고, 그 속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이 들어 있음을 상기하게끔 하며, 더불어 자 유주의, 공동체주의, 공리주의, 실존주의 등 다양한 철학적 질문과 주장들이 그 속에 내재해 있음을 깨 닫도록 한다.
- 그럼으로써 이 문항은 고전문학작품과 현대철학사상의 핵심적 내용을 상호 연관지어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게끔 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력을 고양시키고자 한다.

자료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고전	김종철 외	천재교육	2014	153-156	(가)	0
고등학교 고전	김종철 외	천재교육	2014	265-265	(나)	0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천재교육	2014	180	(다)	0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2014	200-201	(다)	0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천재교육	2014	206-208	(라)	0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2014	230	(라)	0



해설 및 답안

문항해설

고등학교〈고전〉교과서에 실린 해외 유명 문학작품과 고등학교〈윤리와 사상〉에 실린 실존주의와 공동 체주의 철학에 대한 소개 내용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문해력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논술 능력을 평가 하는 문항이다.

제시문 (가)는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소설 "변신"에 대한 국내 작가의 독후감을 바탕으로 그 줄거리와 문 제의식을 소개한 글이다.

제시문 (나)는 도스토옙스키의 장편소설 "죄와 벌"의 일부분이다.

제시문 (다)는 공동체주의적 덕의 윤리를 주장하는 매킨타이어(Macintyre A.)의 글을 바탕으로 하여, 여 러 교과서들에 실린 공동체주의에 대한 소개 글들을 활용하여 작문한 것이다.

제시문 (라)는 교과서에 실린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실존주의 철학에 대한 교과서의 소개 글들을 활용하여 작문한 것이다.

제시문 (가)와 (라)를 연관시켜 실존주의 사상과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실존주의 철학의 현대적 함의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제시문 (나)와 (다)를 연관시켜 공리주의적 발상이 극단적 공동체주의(전체주의)와 어떻게 관련을 맺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제시문 (다)와 (라)를 연관시켜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전체주의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논술할 수 있도록 한다.

채점기준

- * 아래 ①~⑤의 각 항목당 최대 10점씩, 합계 50점.
 - ① 제시문 (가)의 ③'삶의 부조리함'에 대해 실존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잘 설명했을 경우 최대 10점.
 - 예시 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부조리, 실존주의, 자본주의, 관료주의, 획일적(몰개성적) 삶
 - ② 제시문 (가)의 ◎'그레고르'의 경험을 예로 들어 ③에 대해 잘 설명했을 경우 최대 10점.
 - 예시 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헌신(성실), 능력 상실, 버림받음(배신), 소외된 삶
 - ③ 제시문(나)의 ◎'간단한 계산'에 대해(다)의 공동체주의적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히 설명했을 경우 최대 10점.
 - 예시 답안의 세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전체주의(극단적 공동체주의), 반공동체적 개인, 사소한 범죄, 공익 증진, 개인은 전체 속에서만 존재 가치를 지닌다

- ④ ©의 문제점에 대해 제시문 (라)의 실존주의적 내용을 활용하여 적절히 비판했을 경우 최대 10점.
 - 예시 답안의 네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실존주의, 개인의 삶, 고유한 가치
- ⑤ 비문이 없고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경우 최대 10점
- ⑥ 총 글자 수 600-700자는 5점 감점
- ⑦ 총 글자 수 500-600자는 10점 감점
- ⑧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최대 20점 이하 점수 부여
- ⑨ 총 글자 수 800자 초과는 5점 감점

예시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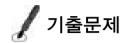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생산성 논리나 관료주의적 통제 시스템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은 체제에 의해 강요되는 도덕과 윤리에 따라 획일적이고 몰개성적인 인생을 살아감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존주의 철학은 이로 인해 현대인들의 삶이 처할 수 있는 부조리한 상황을 고발한다.

구체적인 예로, (가) 소설에서 주인공은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 왔으나, 갑자기 벌레가 되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자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쓸쓸히 죽음을 맞는다. 이를 통해 이 소설은 획일화된 도덕과 윤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어쩌면 자기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실존주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나) 글의 '간단한 계산'은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치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개인은 전체 속에서만 존재 가치를 지닌다'는 (다) 글의 극단적인 공동체주의적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공동체의 번영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반공동체적인 개인을 제거하는 사소한 범죄 행위는 더 큰 사회적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존주의적 관점에 서 있는 (라) 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가치 판단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설령 한 개인의 삶이 보편적인 도덕률의 관점에서 볼 때 공동체에 해롭거나 몰가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할지라도, 각 개인의 삶은 제각기 존중받아 마땅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796자)

Ⅳ. 2020학년도 기출문제 인문계열(오후)



문항 및 제시문

[문제 1] (나)의 내용을 ①, ⓒ, ⓒ 가운데 하나를 들어 설명하고, (라)의 시적 화자가 電처럼 표현한 이유를 (다)를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성(性)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생물학적 신체 구조와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⑦ **생물학적** 성(sex. 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회적·문화적으로 구성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나타내는 🕒 **사회** <u>적·문화적 성(gender, 젠더)</u>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성은 성적 관심이나 성적 활동 등 성적 욕망과 관련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 욕망으로서의 성(sexuality, 성애)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성은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각각의 정확한 의미를 구사하기 위해 성. 젠더. 성애 등으로 아예 단어를 구분해 사용하기도 한다.

여성과 남성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인격체이다. 즉. 인간은 성과 무관하게 평등하므로 성에 근거하여 법률적·사회적으로 부당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성을 이유로 능 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성에 근거한 차별이 있었다.

성차별은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인데, 주로 여성이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임신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취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많다. 한편, 최 근에는 남성들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감당하였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 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의 바탕에는 성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성 역할은 생물학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가정의 양육 과정과 학교 교육 등 사회 환경에 따라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인 식을 가져야 하고, 그런 인식 하에서 자신의 적성과 상황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 특정한 성을 기준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은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양성 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 니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나)

'안사람'이라는 단어가 남성 위주적 가치관에 의한 여성 착취적 장치라는 논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 '안사람'은 오히려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연약하다는 자연적 사실의 인식 에 바탕을 두고. 그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양식에서 근거한 말이라는 주장이다. 남성보다 육체적 으로 약한 여성은 사회 분위기가 살벌할수록 안채나 안방과 같은, 외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 아니라 외부를 거쳐야만 닿을 수 있는, 보호의 성격을 띤 공간 안에서 인간적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는 것이다. 특히 여성은 남성과 육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15세에서 40세에 이르 는 긴 세월 동안 임신을 하고 있거나 임신의 결과물인 육아에 불가피하게 매여 있는 기간이 그렇지 않 은 기간보다 더 길다. 그래서 여성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원시 시대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육체적 힘이나 체력이 강한

남성은 야생의 동물을 사냥하러 거친 대지를 돌아다녀야 했고,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고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은 주거 공간에서 아이를 키우거나 후손을 낳을 수 있는 몸을 보호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안사람'이라는 단어를 남성 위주적 가치관에 의한 여성 착취적 장치라는 시각에서만 보는 것은 오히려 남녀의 육체적 차이를 무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

남자가 사회에서 취하고 있는 형태는 결코 어떤 생리적·심리적·경제적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문명 전체가 수컷과 거세체(去勢體) 사이의 중간 산물을 만들어, 그것에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타인이 끼어들어야 비로소 개인은 '타자'가 된다. 어린이는 자기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동안에는 자기가 성적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소녀·소년에게 처음 얼마 동안 육체는 주체성의 발현이며, 외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다. 아이들이 세계를 파악하는 것은 눈이나 손을 통해서이지 생식기를 통해서가 아니다. 출생의 드라마는 물론, 이유(離乳)의 드라마도 남녀 유아에게 모두똑같이 전개된다. 그들은 같은 흥미와 쾌감을 느낀다. 열두 살까지는 여자아이도 남자 형제들 못지 않게 튼튼하며, 결코 뒤지지 않는 지적 능력을 나타낸다. 여자아이들이 남자 형제들과 경쟁하지 못할 영역은하나도 없다.

그러나 아이가 커가면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극명하게 갈라진다. 남자아이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는 것은, 타인에 대한 그의 존재 방식 자체가 자기에 대해 스스로를 설정하도록 그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에 대한 자유로운 운동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단련해 나간다. 다른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강한 의지와 독립심을 겨루면서 여자아이들을 경멸한다. 나무에 기어오르고, 친구들과 격투하며 거친 장난으로 대결하고, 자기 육체를 자연을 지배하는 하나의 수단과 투쟁의 도구로 파악한다. 이와 반대로, 여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기의 자주적 존재와 '타자 존재' 사이에 충돌이 있다. 그녀는 남의 마음에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자신을 객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는다. 그 결과 자율성이 부정된다.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인형처럼 다뤄지고 자유를 금지당한다. 이리하여 일종의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세계를 발견하고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행사하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세계 속에서 자기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일 역시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 그만큼 주체로서의 자기를 확립할 용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여자아이도 마음대로 하라고 격려를 받는다면 남자아이와 같은 활력과 탐구심, 진취적인 기상과 대담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년기의 여자아이는 여자의 손에 맡겨진다. 남자아이가 어머니의 수중에서 곧 벗어나는 것과 달리 어머니는 딸을 여성의 세계에 완전히 입문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거세체(去勢體) : 생식 기능을 잃은 몸.

·이유(離乳): 젖먹이가 자라서 젖을 그만 두게 됨.

(라)

엊그제 저멋더니 호마 어이 다 늘거니. 소년행락(少年行樂) 생각호니 일러도 속절업다. 늘거야 서른 말음 호자니 목이 멘다.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호야 이내 몸 길러 낼 제 공후배필(公侯配匹)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君子好逑) 원(願)호더니, 삼생(三生)의 원업(冤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로. 장안유협(長安游俠) 경박자를 꿈罩치 만나 잇서. 당시(當時)의 용심(用心) 학기 살어름 디듸는 듯. 삼오이팔(三五二八) 겨오 지나 천연여질(天然麗質) 절로 이니, 이 얼골 이 태도(態度)로 백년기약(百年期約) 호얏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학고 조물(造物)이 다시(多猜)학야.

봄바람 가을 물이 뵈오리 북 지나듯 설빈화안(雪鬢花顔) 어데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골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괼소냐 스스로 참괴(慚愧) 학니 누구를 원망(怨望) 학리.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治遊園)의 새 사람이 나단 말가. 곳 피고 날 저물 제 정처(定處) 업시 나가 잇어. 백마금편(白馬金鞭)으로 어데어데 머무는고.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랴. 인연(因緣)을 긋쳐신들 생각이야 업슬소냐. 얼골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르려믄, 열두 때 김도 길샤 설흔 날 지리(支離) 한다. 옥창(玉窓)에 심진 매화(梅花) 몃 번이나 띄여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최눈 섯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구준비는 므스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景物)이 시름업다. 가을 둘 방에 들고 실솔(蟋蟀)이 상(床)에 울제 긴 한숨 디논 눈물 속절업시 헴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중략) 세상의 서룬 사람 수업다 호려니와.

·월하(月下): 월하노인의 준말, 남녀를 중매하는 역할을 맡음.

·경박자 : 경박한 사람.

·천연여질(天然麗質):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

박명(薄命) 호 홍안(紅顔)이야 날 가득니 또 이실가. ②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 동 말 동 학여라.

·뵈오리 : 베틀에 걸린 베올 사이에.

·면목가증(面目可憎): 얼굴 생김생김이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데가 있음.

·참괴(慚愧)ㅎ니 : 매우 부끄러우니.

·야유원(冶遊園) : 난봉꾼이나 한량들이 오는 곳. 술집.

·백마금편(白馬金鞭) : 훌륭한 말과 값비싼 채찍. 호사스러운 행장.

·실솔(蟋蟀) : 귀뚜라미.

·지위: 탓, 까닭.

출제의도

- 최근 대한민국의 이슈 가운데 하나로 양성 평등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투' 사건은 오랫동안 사회적 통념처럼 여겨지던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도 성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이고 사기업에서도 이제 성 교육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성 교육의 핵심은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생물학적 신체 구조와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생물학적 성(sex, 성), 사회적·문화적으로 구성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나타내는 사회적·문화적 성(gender, 젠더), 성적 관심이나 성적 활동 등 성적 욕망과 관련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욕망으로서의 성(sexuality, 성애) 등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성의 역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성보다는 젠더의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특정한 성을 기준으로 우열을 가리는 것은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본 문제는 성의 세 개념을 이해한 후 다양한 지문을 통해 중세에서부터 현대의 성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봄으로써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려 한다. 본 문제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독서와 문법, 고전, 문학 등에서 다루고 있는 성과 관련된 개념적 해설과 문학적 작품, 고전적 비평 등을 통해 학생들의 논술 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출제했다.

자료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변 순용 외 8명	천재교육	2014	64, 66	제시문 (가)	0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이삼형 외 8명	지학사	2014	38	제시문 (나)	0
고등학교 고전	김종철 외 4명	천재교육	2014	79–81	제시문 (다)	0
고등학교 문학	정재찬 외 5명	천재교과서	2014	52-54	제시문 (라)	X



해설 및 답안

문항해설

- 본 문제의 취지는 주어진 정보를 잘 활용하고 해석하여 올바르게 논술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가)에서는 성에 대한 세 가지의 개념과 양성 평등에 대해 설명해 놓았는데 이 가운데 하나의 개념인 성으로 (나)의 '안사람'이라는, 다분히 가부장적으로 보이지만 제시문에서 논한, 육체적 차이에서 발생한 개념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하고, 이후 (라)의 허난설헌의 〈규원가〉에 드러난 조선 시대 유교 질서의 남녀 차별과 그 상처의 응시를 (다)의 보부아르의 〈제2의 성〉를 통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 (가)는 성에 대한 세 가지 개념과 양성 평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나)는 '안사람'이라는 용어가 젠더적 관점의 비판적 단어가 아니라 여성의 육체를 고려한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의 일부분인 (다)는 유아기 때 동등하던 남성과 여성이 이후 어떻게 차별된 남성과 여성으로 길러지는지 설명한다. 허난설헌의 (규원가)인 (라)에는 바람을 피우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성의 아픔이 애절하게 녹아 있다.
- 이 문제는 제시문 각각의 핵심 논지를 이해하고 서술하는 능력, (라)의 중세의 규방가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가)와 (나). (다)와 (라)의 핵심 내용을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논술하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채점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및 배점

- ① (나)의 내용을 적절하게 설명한 후 (가)의 생물학적 성(sex, 성)과 연결했을 경우 최대
 - (나)의 내용을 (가)의 생물학적 성(sex, 성)과 연결했을 경우 최대 5점, 단 생물학적 성, sex, 성 등도 모두 답으로 처리한다.
 - (나)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안사람'이라는 단어가 남녀의 신체적인 차이에서 나온 것 임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임신과 육아에 필요한 공간으로서의 안방과의 연관 성, 그 안방은 외부 공간이 아니라 외부를 지나야 닿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 이런 사고는 원시 시대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적절히 언급하면 최대 5점
 - 모범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생물학적 성(sex, 성), '안사람', 신체적 차이, 임신과 육아, 안방, 외부 공간, 원시 시대 또는 유사 및 관련 단어
- ② (라)의 시적 화자가 왜 죽고 싶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라)에서 찾아 적절하게 서술했을 경우 최대 **15점**
 - (라)에서 시적 화자가 님 때문에 죽고 싶다고 했는데 님은 남편이다. 그는 장안의 협 객이고 경박한 사람이며, 결혼 후 집을 나가 술집에서 다른 여자들과 만나고 있으며 몇 년 동안이나 소식조차 없다는 것을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10점
 - (라)에서 시적 화자는 그런 난봉꾼인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점점 늙어가는 자신의 신 세를 부끄러워하며 기다린다는 내용을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5점
 - 모범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님, 남편, 장안협객, 경박한 사람, 야유원(술집), 새 사람(여자), 소식 없 음, 시간 경과, 참괴(부끄러움), 기다림 또는 유사 및 관련 단어
- ③ (다)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성장 과정과 서로 다른 주체성 형성 과정을 적절히 서술했 을 경우 최대 20점
 - (다)에서 어린 시절에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성적인 구별 없이 동일한 성장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적절히 서술하면 최대 <u>5점</u>
 - (다)에서 남자아이는 주체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서술하면 최대 **5점**
 - (다)에서 여자아이는 자주적 존재와 타자 존재 사이의 충돌의 결과. 자신을 객체로 바라보게 되고, 자율성이 부정된다는 것을 적절하게 서술하면 최대 5점
 - 앞에서 서술한 이유 때문에 (라)의 남편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만, 시적 화자인 여성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한다는 것을 설명하면 최대 5점
 - 모범답안의 세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s: 남자아이, 여자아이, 동일한 성장 과정, 주체성, 자주적 존재, 타자 존 재, 객체, 자율성, 수동성 또는 유사 및 관련 단어
- ④ 비문이 없고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경우 최대 5점

〈유의 사항〉

- ① 총 글자 수 600~699자는 5점 감점 총 글자 수 500~599자는 10점 감점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20점 감점
- ②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예시답안

'안사람'이라는 단어는 신체적으로 연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양식에 근거한 말이다. 여성은 15 세에서 40세에 이르는 기간에 임신을 하거나 육아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로 닿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내부의 안전한 공간에서 그녀들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생긴 말이라는 것이다. 살벌했던 원시시대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사고는 생물학적 신체 구조와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생물학적인성(sex)'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의 시적 화자는 님 때문에 죽고 싶다고 했다. 여기서 님은 그녀의 남편인데, 장안의 협객이며 경박한 사람인 남편은 결혼 후 집을 나가 술집에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있다. 심지어 그는 몇 년 동안이나 아내에게 소식조차 전하지 않지만, 시적 화자는 한편으로는 그런 남편을 그리워하고, 한편으로는 늙어가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무작정 기다린다.

시적 화자가 남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다)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은 다르게 길러졌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동일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심지어 성적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면서 주체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이후 남자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단련해 가면서 주체가 되어가지만, 여자아이는 자주적 존재와 타자 존재 사이의 충돌의 결과, 자신을 스스로 객체로 바라보게 된다. 결국 남자아이와 달리 여자아이는 자율성이 부정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라)의 남편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만, 시적 화자인 여성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한다. (764자)

Ⅳ. 2020학년도 기출문제 인문계열(오후)

/ 기출문제

문항 및 제시문

[문제 2] (가)의 상인과 (나)의 법관의 직업활동에서 ©과 ②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각각 설명하고, ③의 의미를 (다)에서 찾아 설명한 후, ⑥과 ③이 사회와 국가에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을 (다)를 바탕으로 논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나는 손님들에게 고구마를 후하게 줬다. 그래야만 손님이 많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집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고 그대로 따른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보름쯤 지나서 주인이 나를 불렀다. 고구마가 많이 축난다는 것이다. 가마니째 달아 본 무게와 소매로 판 고구마의 무게가 많이 차이 난다고 했다. 그러니 앞으로 덤을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내가 기록하고 있는 매상 장부를 보면 고구마는 갑절이 넘는 이윤이 나오고 있었다.

한 주일 뒤에 주인이 또 불렀다. 이번에는 고구마를 저울질할 때 요령껏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범을 보여주었다. 한 관씩 표시를 해 둔 작은 막대 ① <u>저울</u>로 고구마를 달 때, 손잡이를 잡고 새끼손가락 끝으로 약간만 고구마가 얹힌 쪽으로 누르면 된다는 것이다.

나는 다음 날 혼자서 그 요령을 시험해 보았다. 놀랍게도 그것은 커다란 ① <u>속임수</u>였다. 새끼손가락의 중간 마디로 저울대의 머리를 누르기는커녕 약간만 건드려도 3킬로그램만으로도 한 관이 되었다.

한 관은 3.75킬로그램이다. 그런데 3킬로그램만으로 한 관이 되게 속여서 파는 짓이다. 나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도무지 손이 떨려서 고구마를 달 수 없었다.

그런데 주인이 또 불렀다. 왜 시킨 대로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나는 시킨 대로 못 했으니 대답할 말이 없었다. 주인과 머슴 사이는 바로 이런 것이다.

나는 어느새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신분의 차이가 없어졌다지만 역시 인간 사회에는 계급이 있기 마련이다. 가난은 양심을 지키지 못하게 하며 거짓을 강요받게 만든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주인은 나도 모르게 사람을 시켜 나에게 고구마를 사러 보낸 것이다. 그게 바로 스파이 행위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한 번씩 사람을 바꾸어 보낸 것이다.

돈의 힘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돈은 돈만 벌지 않고 악을 낳고 퍼뜨리는 악마다. 나는 그래서 그 돈에 복종했고 내 조그만 ⓒ **양심**을 속이게 되었다.

나에게 고구마를 사러 오는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이들이었다. 날고구마를 한두 관씩 사다가 쪄서 파는 고구마 장수들, 한 끼니를 잇기 위해 한 관씩 사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게를 속여야 했다. 고구마 두세 개씩은 속이게 되었다. 낱개로 쪄서 파는 아주머니 는 될 수 있으면 작고 때깔이 좋은 걸 골랐다. 그렇게 작은 고구마라면 다섯 개도 속일 수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두렵고 떨리며 괴로웠지만 차츰 아무렇지 않게 되었다. 나도 악마들의 세상에 길들 여진 것이다.

(중략)

어느 날 고구마 가게에 뜻밖에도 어머니가 찾아오신 것이다. 어머니는 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있어 서 고구마를 쪄서 팔아 보려고 왔다고 했다.

나는 어머니께 고구마 두 관을 팔면서 하마터면 여느 사람들에게 하듯이 속일 뻔했다.

어머니를 보내 놓고 나는 그때서야 가슴이 아프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판잣집 가겟방에서 혼자 자 면서 거의 밤을 지새우다시피 울었다.

내가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가 생각났다. 돈 때문에 결국은 나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팔려 가는 주인공을 그린 오가와 미메이의 '빨간 양초와 인어', 금으로 장식된 왕자의 몸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 해 온몸을 부수어 이웃을 돕는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십구 년이나 옥 살이를 하는 '장 발장'의 이야기. 고구마 한 개를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힘센 토끼한테 다 빼앗기는 이 솝의 '생쥐 이야기', 내 가슴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동화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이다. (중략)

결국 나는 고구마 가게를 떠나기로 했다. 갑자기 두려워진 것이다.

(나)

모든 국민은 법관으로 조직된 법원에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형사 소송은 수사 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그 후속 처분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 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가장 밀접한 절차로서 개인에게 방어권이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에 서도 신체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의 지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인간 존엄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 닌다. 형사 재판은 법관의 주재 아래 피고인과 검사의 공격과 방어를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우리가 고대의 사적인 형벌을 금지하고 오로지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여 법원을 통한 형벌 부과만 정 당한 것으로 사법 체계를 정비한 것은 중립적인 법관의 재판에 대한 ② **공정성**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 런 이유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와 같이 법관은 법률 문제를 다루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 신분을 두텁게 보호받는다.

그런데 재판 과정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하기도 한다. 법관은 피고인에게 형량을 선고할 때나 범죄의 유무를 판단할 때 변호인 등 외부의 힘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인상 을 주기도 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들이 통용되고, 형량의 결정도 투명성 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들이 늘 존재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 선고하는 형량이 달라 지고, 그 형량의 폭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경우 국민들은 사법에 대하여 불신감을 갖게 된다. 검

사 또는 판사의 직에서 물러난 변호사가 선임되어야만 형사 절차의 초기 단계부터 유리한 지위를 확 보할 수 있다는 세간의 말들이 떠도는 것 또한 이러한 재판 불신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이것은 재판 과정이 학연, 지연, 혈연 등 정실주의(情實主義)에 휘둘려 재판내용의 回불공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사법부 스스로 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는 일반 국민들의 재판 참여를 통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 국민들 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 정실주의 : 사사로운 정(情)이나 관계에 이끌려 판단하는 것.

(다)

개인이나 사회가 부패했다고 말할 때, 부패는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불법 행위나 부정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부패라 하면 이권이나 뇌물이 연상되듯이. 특히 공직자의 권한을 이용한 이권 개입이나 뇌물 수수와 관련된 부정 행위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뜻으로 부정부패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부패 정도는 다른 경제 선진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사회의 부패는 일부 사회지도 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개인의 경우 초기의 사소한 규범 위반을 대수 롭지 않게 여겨 그것이 점점 관행화되고 습관처럼 굳어져.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직 업 영역에서 윤리의 범주를 이탈하였다는 것을 잊기도 한다. 각 직업 영역에는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 이 윤리의 토대가 되고, 그것은 개인 간의 신뢰에 기여한다. 사회지도층의 불법 비리 행위는 사회에 미 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크고,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 국민들은 그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기대하는데, 이는 공직자나 특정한 직위에 있는 자가 객관적이고 공정 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부패가 심한 것은 연고주의(緣故主義)나 정실주의(情實主義)에 치우치거나 준법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특히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사적인 연고를 중심으로 인간관계가 맺어 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치·경제활동 등의 공적인 영역에 사적인 연고와 정실 요소가 개입하기 쉽 다. 하지만 부패는 사적인 영역에서도 직업적 양심과 규범을 저버리고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부패의 문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정 집단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 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부패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개인 또는 조직의 부패는 고발이나 신고 없이는 외부로 드러나기가 어려우므로 신고자 또는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 다. 이에 국회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을 만들어 이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만들었다. 이러한 제 도와 더불어 사회 각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인 모두 스스로 직업 윤리와 준법 의식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출제의도

- 이 문제는 우리 사회와 국가에서 부패의 문제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관행화되며 결국은 사회와 국가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부패의 문제는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 각자가 직업 영역에서 얼마만큼 직업 윤리에 기 초하여 자신의 행위 내지 판단을 통제 또는 제어할 수 있느냐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패 방지는 한편으로 직업 윤리와 다른 한편으로 법규범의 논의에 그 토대를 두어야 가능하다.

출제근거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문학	박종호 외	창비	2018	277–281	제시문(가)	0
고등학교 법과 정치	김왕근 외	천재교육	2016	176	제시문(나)	0
고등학교 법과 정치	손병로 외	금성출판사	2018	32, 125, 188, 194	제시문(나)	0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조성민 외	비상교육	2017	191–194	제시문(다)	0



해설 및 답안

문항해설

- (가)에 따르면, 고구마를 파는 상인(판매자)은 어느 누구와도 계약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그것은 그들에게 자유롭다. 시장 참여자들은 오로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시장 가격과 그 기준에 따라 매매를 시작한다. 여기서 매매 대상은 고구마이지만 그 매매의 기준은 저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 아래 저울의 기준 (객관성)에 따라 시장은 규율되는 것이다. 그런데 상인은 속임수를 쓰게 되어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데, 이들 상인에게 양심의 문제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양심은 상거래의 진실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이며, 부정하고 불공정한거래 행위에 유혹을 떨치게 하는 통제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나)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들의 분쟁에 대하여 최종적 심판자 역할을 한다. 사법 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관의 재판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그 생명이다. 심판자로서 법관이 공직 사명을 저버리고 중립성을 잃게 되면 판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과 '전관예우'등의 통용은 재판의 불공성을 비난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공직자인 법관은 학연, 지연, 혈연등 정실주의를 단호하게 배척하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가 있다.
- (다)에 따르면, 한 나라의 (부정)부패는 다양한 영역과 요인에서 나온다. 국가의 선진화 정도 또한 부패의 수준과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부패는 공적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수 있다. 주요하게 다루는 것이 공직 사회의 부패라고는 하지만 사적 영역에서 문제되는 준법 의식의 약화나 규범의 무시 현상을 빼놓을 수는 없다. 부패는 일정한 직업 영역 등에서 거래의 판단 내지 의사결정 등의 과정에 연고주의나 정실주의 등이 개입하여 공정한 결정을 방해하고, 부정한 이익을 탐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직업 영역에서 일어나는 부패는 단순히 사적 범위를 넘어 사회와 국가의 공정 경쟁을 해칠 뿐만 아니라사회 또는 국가통합을 해친다.

채점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및 배점

- * 아래 ①. ②항목은 각 최대 15점. ③항목은 최대 5점. ④항목은 최대 10점. ⑤항목 최대 5점. 합계 50점
- ① (가)의 상인이 고구마를 부정하게 판매한 행위의 비난의 근거로 양심(ⓒ)이 제시될 수 있으며, 그 양심은 저울 눈속임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하여 통제의 기제 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면 최대 15점
- 거래 행위의 기준, 저울의 기능을 분석하여 서술(5점)
- 신뢰의 중요성. 부정한 이익(불공정한 행위)(5점)
- 직업 윤리의 가치로서 양심, 부정의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양심(5점)

Key Words: 저울, 부정한 이익, 신뢰, 양심, 직업 윤리, 상도덕

- ② (나)의 법관이 사법권을 행사하고 그것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담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국민의 재판 신뢰의 토대를 이룬다는 것을 적절하게 서술 하였으면 최대 15점
- 법관의 중립성과 객관적 판단. 신뢰성의 토대(5점)
- 외부세력의 힘이나 권력으로부터 중립을 유지하고 정실주의의 배척(5점)
- 공직자로서 법관의 사명, 판결의 정당성(5점)

Key Words: 중립성, 신뢰, 공정성, 객관성, 정실주의

- ③ 저울(③)은 거래에 사용되는 도구로서 교환기준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판단 기준에 해 당한다는 점을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면 최대 5점
- 거래 기준 및 판단 기준으로서 사회적 약속. 객관성 또는 신뢰를 상징(5점)

Key Words: 거래 기준, 판단 기준, 사회적 약속, 객관성, 신뢰

- ④ (다)를 활용하여 속임수(ⓒ)와 불공정(泌)이 부패 온상의 원인이 되고, 결국 사회와 국 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사회 또는 국가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연결지어 적절하게 논술하였으면 최대 10점
-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부패 원인, 부당한 이익 추구와 객관성 상실(사소함에서 확 대)(5점)
- 불신 사회를 초래. 사회 또는 국가 통합을 해침. 공정 경쟁을 방해하고 위화감 조성(5 점)

Key Words: 부패, 부당한 이익, 객관성, 불신, 준법 의식의 약화, 사회 또는 국가 통합, 공정 경쟁, 위화감

⑤ 비문이 없고 맞춤법에 맞으며, 전체적으로 글의 구성 및 논지 전개의 완성도가 높을 경우 최대 5점

〈유의 사항〉

- ① 총 글자 수 600~699자는 5점 감점 총 글자 수 500~599자는 10점 감점 총 글자 수 500자 미만은 20점 감점
- ②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예시답안

(가)의 상인은 소비자에게 고구마를 판매하는 시장 참여자로서 저울의 눈금대로 물품과 돈을 교환하여 야 한다. 상인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약속을 어기고 객관적 기준인 저울을 부정한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시장 참여자 상호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그는 부정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 양심(區)은 정상적인 상도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윤리의 가치로 작용하고, 거래 행위에 부정의가 개입할 위험을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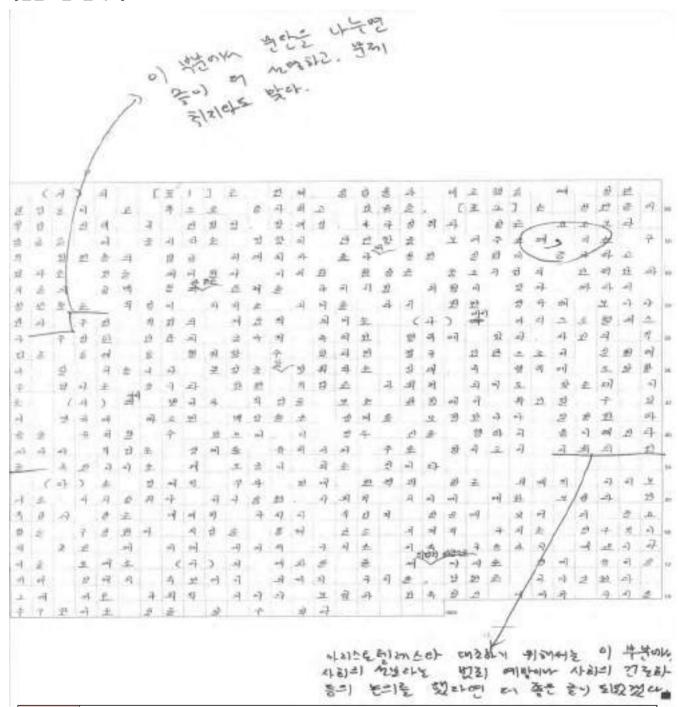
(나)의 법관은 공직자로서 재판과정에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법관은 사람들 의 다툼을 해결하는 최종적 권한을 부여받는 공직자이므로 그들의 판단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 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의 재판은 돈, 권력 또는 정실주의 등 외부의 관계나 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 다. 재판에 대한 공정성(◉)은 법관의 권력행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최고의 덕목이자, 재판 신뢰의 근 간이다.

저울(○)은 거래의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그 눈금과 거래 조건은 결국 사회적 약속, 객관성 또는 신뢰 를 상징한다. 왜냐하면 저울은 거래뿐만 아니라 일정한 판단의 기준으로서 그것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통용되기 때문이다.

속임수(○)와 불공정(○)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부패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습관화될 경우 부당한 이익 추구나 객관성을 잃는 결정들로 채워진다. 부패는 사 회와 국가에 불신을 초래하고, 준법 의식을 약화시켜 사회통합을 해쳐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공정경쟁을 가로막고 편법을 조장하며 국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796자)

11 응시자 답안 첨삭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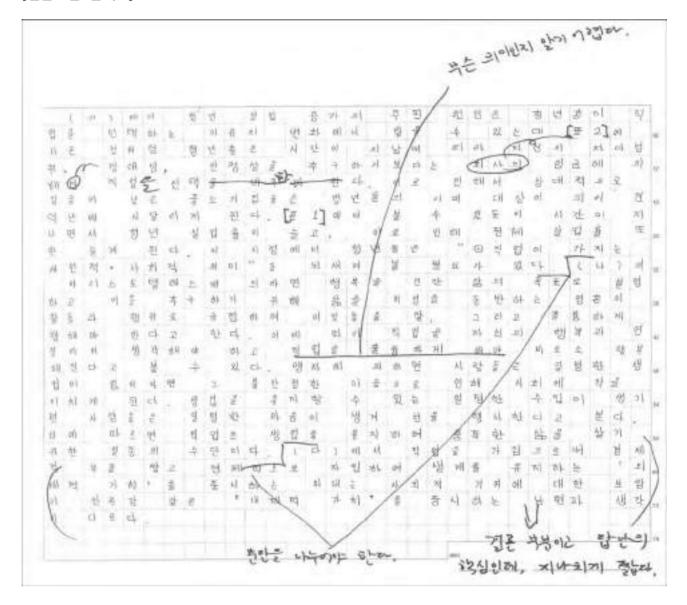
[인문오전-문제 1]



총 평

이 답안은 글이 매우 탄탄하고, 논지전개가 좋고, 무엇보다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한다. 어떻게 보더라도 좋은 글임에 분명하다. 다만 지문을 조금 더 자기식으로 소화해서 정리했 다면 더 좋은 글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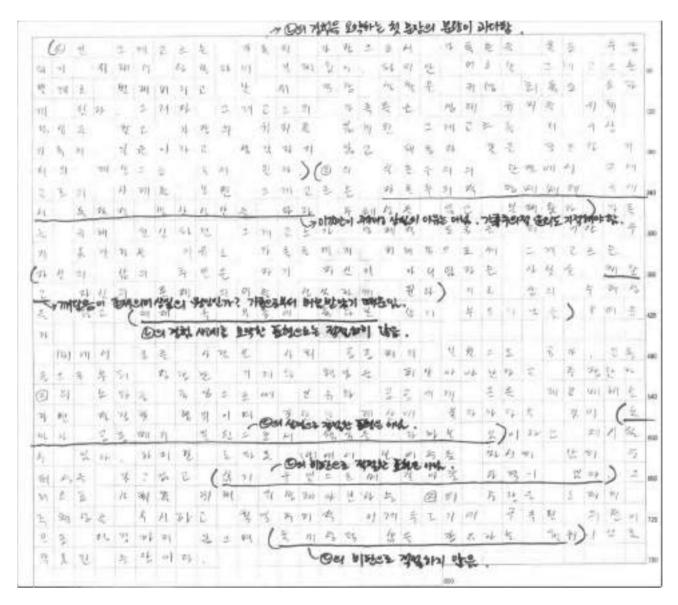
[인문오전-문제 1]



총 평

이 답안은 지문을 일고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 자기 식으로 소화한 후 정리해서 글을 써야 하는 논술의 취지에 다소 어긋난다. 일단 지문을, 특히 (나)를 소화하지 못해 길게 인용만 했고, 그러다 보니 (다)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 했다. 무엇보다 문단 나누기가 되지 않아 글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인문오전-문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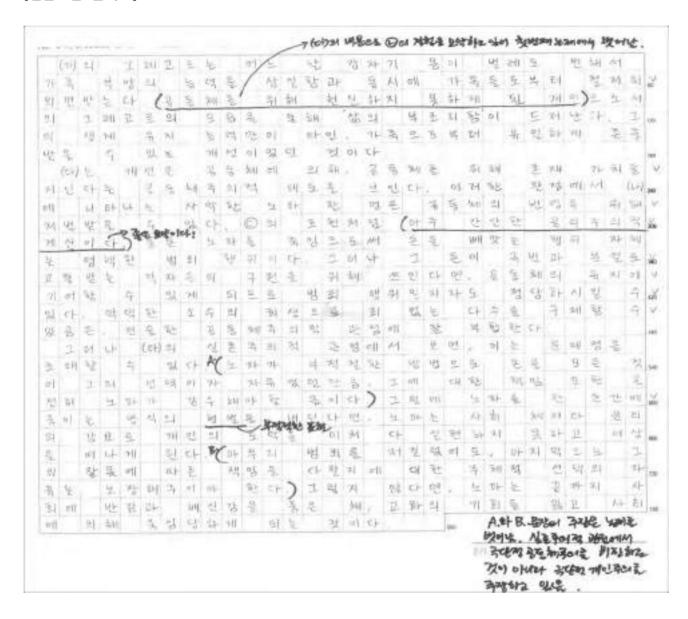


1) 이 문항은 첫째,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적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와 둘째, 극단적인 공 동체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핵심 논제인데, 답안의 전반적인 외형적 완성도는 갖추 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총 평

- 2) 첫 번째 논제의 핵심은 ③에 대해 설명하는 것인데, ⓒ의 경험을 단순히 요약하는 데 너무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음. 🕒의 경험은 🗇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서 적절히 요약 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두 번째 논제는 (다)의 극단적 공동체주의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의 공리주의적 사 고에 대해 요약하고, 이를 (라)의 실존주의의 내용을 활용하여 비판하는 것인데, 답안 서 술에서 표현이 부적절하며, 비판의 지점을 잘못 설정하고 있음.

[인문오전-문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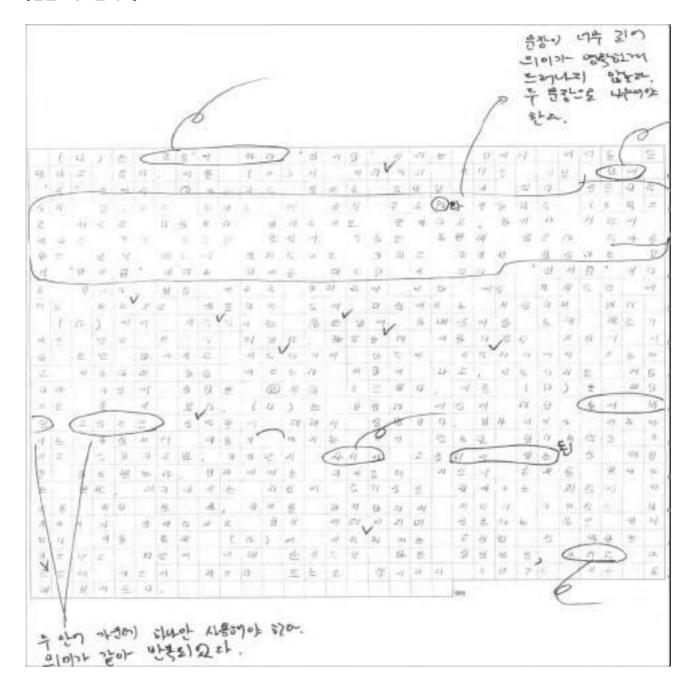


1) 이 문항은 첫째,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적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와 둘째, 극단적인 공 동체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핵심 논제인데, 문장의 외형적 완성도는 갖추고 있으나 답안의 분량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용상으로도 아쉬운 점이 있음.

총 평

- 2) 첫 번째 논제에 대한 답안은 분량이 너무 소략하며, 답안에 (다)의 논의를 끌어들이고 있어 내용적으로도 부적절함.
- 3) 두 번째 논제에 대해서는 분량을 과다하게 할애하고 있으나 내용이 다소 부적절함. 특 히 제시된 논제의 범위(실존주의적 관점에서 극단적 공동체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할 것)를 넘어서 오히려 극단적 개인주의를 주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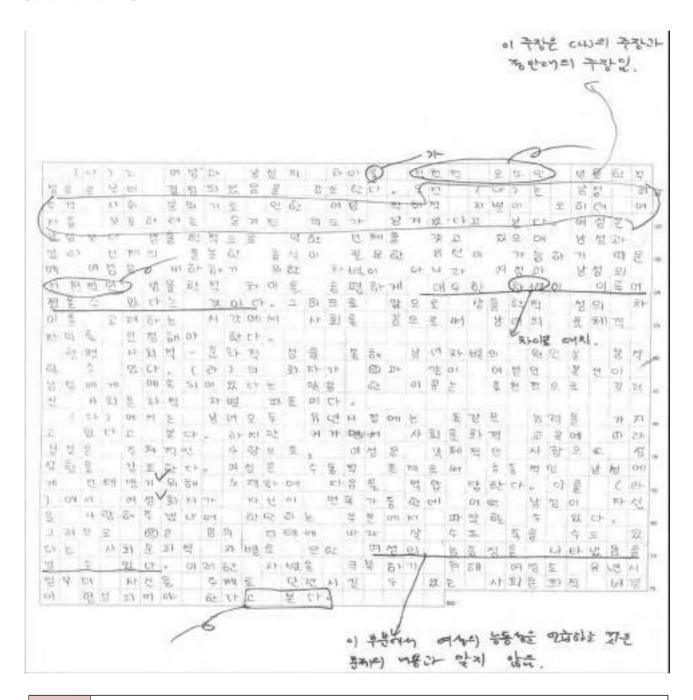
[인문오후-문제 1]



총 평

전반적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정답을 잘 제시하고 있어 모범 답안처럼 보인다. 지문의 내 용을 잘 이해해서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지를 전개했고, 글의 구성도 훌륭하다. 다만 문장이 길고 띄어쓰기가 안 되는 것은 수정해야 할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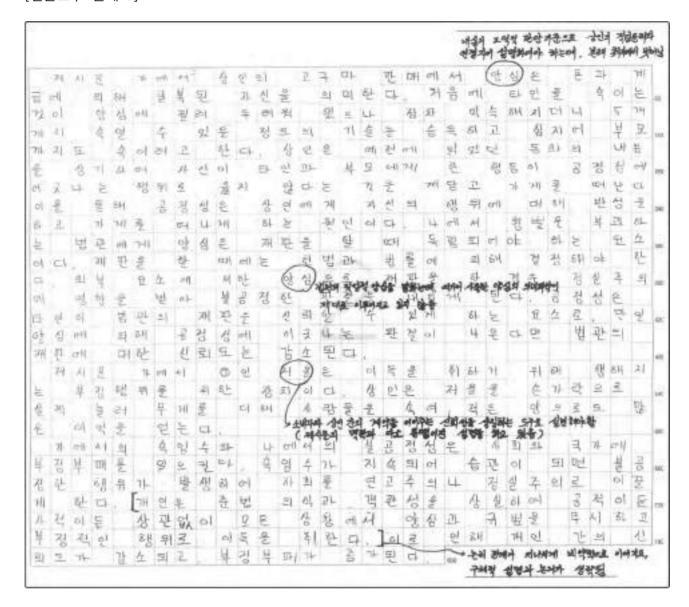
[인문오후-문제 1]



총 평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명확하면서도 논리정연하게 적어야 하는데. 이 답안은 먼저 중요한 부분에서 두 번이나 문제와 어긋나는 답을 적었다. 그래서 글의 논지 전개가 매끄럽지 않고 어긋난다. 무엇보다 주어진 지문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라)를 별로 활용하지 않아 구 체성이 떨어진다.

[인문오후-문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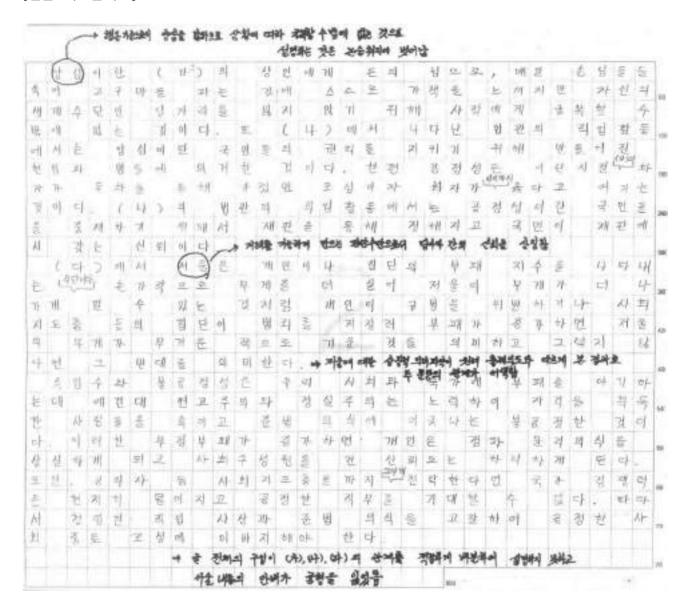


1. 학생 답안은 제시문의 핵심어에 대한 개념 설명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그 부분의 문제 는 결국 글 전체의 논리적 전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음.

총 평

2. 상인의 양심과 법관의 양심은 직업상 요구되는 윤리의식으로서 공정성과 신뢰를 기대 하게 만드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글 전개에서 각 양심의 개념을 연결짓는데 부족한 면 이 드러나고 있음

[인문오후-문제 2]



1. 제시문 (가)의 양심은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데, 그 내용의 서술 에 접근하지 못함

총 평

- 2. 저울은 거래 당사자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있게 하는 매개체로서 기능 하는데, 학생 답안은 전혀 다른 맥락으로 서술하고 있음
- 3. 각 쟁점에 대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서술하여야 하는데도 기술한 분량이 편중되어 있음



KwangWoon University



2020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합격자 합격수기

- 1. 화학공학과 20학번 홍원준
- 2. 전자공학과 20학번 박지홍
- 3. 경영학부 20학번 정수연
- 4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한부 20한번 최다혜





Ⅶ. 2020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합격자 합격수기

1. 화학공학과 20학번 홍원준

가. 논술을 위해 준비했던 공부 노하우를 소개해주세요

6월부터 5개월간 논술 준비를 하면서 문제가 쉽든 어렵든 주어진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많은 문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공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수1부터 기하와 벡터까지 나오는 모든 공식의 증명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제가 이해할 때까지 귀찮게 굴면서 질문하였고 또 그것을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손으로 직접 써 보며 점검하였습니다. 광운대학교 논술고사를 보기 전 모의 논술고사 문제, 작년 논술고사 기출문제, 재작년 논술고사 기출문제까지 한 문제당 3번 이상 풀어 보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겠지만 정시 공부하는 것처럼 논술 공부할 때도 필요한 것은 성실함과 실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논술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노력을 했나요?

논술을 준비하면서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점은 저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야지'라고 다짐했었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른 생각들과 유혹에 넘어가 다짐을 지키지 않은 저를 보며 많이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지속하다 보니 공부도 집중이 잘 안 되었고 그냥 의미 없는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보게 되었는데, 그 말이 너무나 저에게 위로가 되었고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동력을 주었습니다. 그 뒤로 흔들릴 때마다 공부 성공 관련 명언들을 보고 마음에 새기면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결과와 미래에 대한 심적 부담도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논술의 경우 답뿐만 아니라 풀이 과정도 봐야 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의 극복 방법은 오직 반복뿐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를 여러 번 풀다보니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또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씩 상세히 적다 보니 저의 답이 점점 정답지에 있는 해설과 같아지는 것을 보며 자신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불안함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감정인만큼 해결책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의 내가 해결한다는 말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지난 후 열심히 공부한 나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줄 것입니다.

다. 논술 답안 작성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논술 답안 작성 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장에서 실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긴장감 때문에, 혹은 너무 안일해서 실수를 여러 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는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제가 확실히 자신 있는문제에 시간을 더 투자하였습니다. 그렇게 풀다 보니 긴장감도 많이 줄어들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 논술 합격자로서 논술 준비과정이 대학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대학 수학을 공부할 때는 흔히 고등학교에서 풀었던 것처럼 답을 적는 것이 아닌 과정을 증명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논술을 충실히 대비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문제가 익숙하게 되고 또 푸는데 거부감이 들지 않아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마. 논술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이 제가 살아가는 삶에 동력을 주어 논술 준비를 열심히 하게 된 것처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동력을 주어서 내년에는 꼭 같은 학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전자공학과 20학번 박지홍

가. 논술을 위해 준비했던 공부 노하우를 소개해주세요

저의 첫 번째 논술 공부 노하우는 수학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모든 정의, 정리에 기반을 두고 공부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먼저 풀고 나중에 개념적인 부분을 공부하려면 오히려 숙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먼저 개념을 공부하고 후에 문제를 풀게 된다면 그 개념을 문제를 풀 때 적용도 하게 되면서 개념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껏 풀어보지 못한 문제를 만날 때도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이런 개념을 적용하면 풀리더라"같이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든 풀이 과정을 서술해서 쓰는 것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서 수학 실력을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실전에서 막힘없이 문제를 풀어나가 자신의 실력을 더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가고 싶은 목표 대학의 모의 논술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모범답안이나, 해설을 보는 것입니다. 보고 베끼는 것이 아니고, 해설과 모범답안이 어떤 부분까지 서술해놓았는지를 봄으로써 내가 풀이에 쓰려고 하는 내용이 오히려 지저분한 풀이를 만들지는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범답안은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를 채점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풀이를 쓰는 방향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줄이 없는 공란 부분에 문제를 풀 때도 풀이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써가면서 푸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논술에 필요한 글을 쓰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 논술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노력을 했나요?

모든 문제를 풀 때 내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내는 것이 실력을 키우는 데 가장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 많은 논술 문제들이 난도가 있는 문제들이어서 문제 하나를 푸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잘 풀리지 않는다고 바로 답지를 보고 이해하기보다 풀릴 때까지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다. 논술 답안 작성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첫 번째, 글씨체가 좋지 않아도 깔끔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이 깔끔해야 눈에 잘 들어오는 것처럼 풀이도 깔끔해야 읽는 것이 편하므로 깔끔하게 쓴 글이 실질적으로 가산점을 받는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문제를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주기 위한 글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채점위원 분들은 제 풀이를 보시면 어떤 논리를 사용했는지 잘 아시겠지만 내가 이 계산을 진행할 때 어떤 수학적 정리, 어떤 제시문을 사용하여 이 풀이가 나왔는지 쓰는 연습을 한다면 한눈에 보기도 편하고 내가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풀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분점수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더라도 문제의 풀이 과정 중에서 필요한 단어나 식이 있다면 기재함으로써 부분점수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논술은 부분점수가 있으므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점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하고 지저분한 풀이는 될 수 있으면 생략해주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썼듯이 글은 깔끔할수록 좋으므로 출제자가 의도한 부분같이 필요한 과정들 위주로 적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 논술 합격자로서 논술 준비과정이 대학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 대학교 와서 수학 강의를 들을 때입니다. 수업 중에 정리나. 정의에 근거하여 문제 풀이가 진행되는 강의가 있어서 그 강의를 들을 때 논술을 준비하며 공부했던 증명들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대학 수학이 고등학교 과정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논술을 공부하면서 키웠던 사고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 논술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논술을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물론 경쟁률도 높고 어려운 전형이지만 논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를 게을리 하지 않고 성실히 준비한다면 유리한 전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이 광운대학교 자연계열 논술고사는 수학 시험만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신 성적이 들어가지만. 등급 간의 격차가 많이 나지 않아 큰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학에 다른 친구들보다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준비하면, 오직 수학 실력으로만 경쟁하는 논술고사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3. 경영학부 20학번 정수연

가, 논술을 위해 준비했던 공부 노하우를 소개해주세요

논술의 본질은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논술을 시작했을 때에는 단순히 글을 잘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연습을 거듭하며 느낀 점은 논술은 결국 읽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글을 화려해 보이도록 쓰는 기술은 몇 번 연습하면 쉽게 터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읽기 능력은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논술 제시문이나 수능 국어 지문 혹은 신문 사설과 같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한 글들을 요약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엔 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글의 주제도 명확히 파악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해 나가다 보면 글의 구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전체 글을 구성하는 한 문단 문단의 역할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요약 연습은 읽기 실력과 더불어 문단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글쓰기 힘도 길러줍니다.

나. 논술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노력을 했나요?

논술이 가장 힘든 점은 내 답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능이야 전국단위 모의고사를 통해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가능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술은 선생님이 답안 검토를 도와 주신다고 해도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 준비 기간 내내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논술 기출문제와 해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학교에서 제시한 논술 자료를 보면 채점 가이드라인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채점 가이드라인을 통해학교가 답안의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고, 어떤 채점 방향을 가졌는지를 쉽게 파악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범답안 역시 학교가 원하는 답안의 표본인 만큼 반드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항목입니다. 기출문제 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것을 소홀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해설이야 말로 답안의 정도에 대해 학생 입장에서 학교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답안을 스스로 첨삭할 때 혹은 모범답안을 분석할 때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보면 전보다 학교가 원하는 답안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논술 답안 작성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답안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패턴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고사장에서 흐르는 시간은 연습때의 시간보다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고사장에서 시간이 빨라짐을 느끼는 순간. 긴장하게 되면서 답안 작성의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연습을 할 때부터 답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논제는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미리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러 가기 전까지 실전 연습을 통해 매뉴얼을 몸에 익혔습니다. 다시 말해 개요를 미리 짜놓고 그때그때 제시문에 맞춰 조금씩 수정해가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을 안배해 행동 영역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시험 시작 후 20분까지 논제 분석, 40분까지 개요에 적용, 80분까지 논제 1번 답안 완성 등 행동의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논술전형은 정형화된 논제 유형이 존재하고 모의논술 역시 본 논술과 흡사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매뉴얼을 만드는데 용이합니다. 혹시 시험장에서 내가 긴장하더라도 미리 준비했던 패턴대로 행한다면 시간 안에 원하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논술 합격자로서 논술 준비과정이 대학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논술은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의 제시문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저절로 박학다식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에 와서는 전공 과목 뿐 아니라 교양 과목을 여러 개 듣게 되는데 이렇게 논술에서 쌓은 지식이 교양 과목 공부에서 빛을 볼 때가 있습니다. 논술에서 한번 접했던 글들은 희한하게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더구나 한번 봤던 글이니만큼 다시 대학에서 보게 되면 처음 본 사람 보다 그 몰입도나 이해도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논술 준비로 의도치 않은 예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생활 중에는 논술 형식의 글을 제출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과제나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물을 제출할 때 역시 제시문을 통해 얻은 지식이 두루 쓰일 때가 많습니다. 논술은 교수님에게 학문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높은 완성도를 어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지겨워 마지않았던 논술이 대학에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 무기가 되어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 논술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교과서대로 공부했어요.' 식의 진부한 멘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지금까지 제가 한 말들이 다 틀에 박힌 합격 수기의 전형인 것 같아 부끄럽네요. 모든 겉치레를 버리고 말하자면 논술은 수험생 입장에서 힘든 시험입니다. 준비하는 내내 깜깜한 터널을 걷는 기분입니다. 열심히 답안을 작성하고 첨삭을 받고 재작성을 해도 이게 맞을까.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이 기분은 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계속됩니다. 하지만 입시 과정에서 확실한 합격 보장이 있는 전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모두 여러분과 같은 마음입니다. 고리타분한 말이겠지만 즐기는 수밖엔 없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높은 경쟁률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탄탄한 기본을 만드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패턴을 만드세요. 자신감은 본인 스스로 만족할만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발휘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순간에도 끝은 있습니다. 지금은 논술이 밉고 싫어도 논술 보는 그날까지 기출 문제를 손에서 놓지 맙시다!

4.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0학번 최다혜

가. 논술을 위해 준비했던 공부 노하우를 소개해주세요

일명'양치기'가 제 논술 공부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많이 써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논술을 처음 시작할 때,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많이 푼다고 해서 대충 풀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3~4시간씩을 논술 공부하는 데에 투자했습니다. 논술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반에는 시간을 재지 않고 제가 풀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많이 풀고자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실제 시험 환경을 재현해서 실전 감각을 키워나갔습니다. 학교 토요자습 때 홀로 반에 가서 주말 오전에 있을 논술시험에 대한 실전 감각을 기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첨삭 역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 첨삭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학교의 채점 기준을 읽고 스스로 첨삭을 하다 보면 학교의 스타일과 글의 방향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논술은 하나의 입시시험이기 때문에 모범 답안이 존재합니다. 그 정답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학교가 제시한 채점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제 글의 문제점을 찾아 나갔습니다.

나. 논술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노력을 했나요?

제 답안과 모범답안의 괴리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나름 잘 썼다고 생각했지만. 모범답안보다 제 글의 수준이 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를 도와주신 선생님께서는 차차 발전할 것이라 하셨지만, 논술에 모든 걸 쏟아부었던 저에게는 큰 위기로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모범답안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저 베끼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구조. 문맥의 연결을 살피며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필사하면서 분석했습니다. 2주 정도 필사를 하고 나니 어느 정도 글의 가닥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다. 논술 답안 작성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문제 읽기와 어휘의 중복 피하기라고 생각합니다. 논술은 글쓰기이자 하나의 시험입니다. 학교가 낸 문제를 수험생들은 글로 써서 답변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 쓴 글이라도 문제의 의도에 어긋나면 논술에서 잘 쓴 글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위해서는 문제를 정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다음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개요를 작성할 수 있고, 답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를 다양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어휘를 반복할 경우, 글이 굉장히 루즈해집니다. 예를 들어,'2016년까지는 증가의 추세를 보입니다.'라는 문장 뒤에'하지만, 2017년부터는 감소의 추세가 보입니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문장 구조 자체의 통일성은 있어 보이지만, 글을 잘 쓴다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까지는 증가의 추세를 보입니다.'라는 문장 뒤에'하지만, 2017년부터는 감소의 수순을 밟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쓴다면 앞의 예시보다 글이 더 풍부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듯 어휘는 논술의 꽃입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가 글을 얼마나 아름답게 꽃 피우는지를 결정합니다.

라. 논술 합격자로서 논술 준비과정이 대학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레포트 제출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논술 자체가 논리성을 기반으로 한 시험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글을 써서 제출해야 하는 레포트 과제를 할 때 남들보다 편하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논술 준비하면서 개요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여놔서 이것이 논리적으로 글을 써야할 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장 다음에 근거를 쓰는 논술 답안 작성의 구조가 대학 레포트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레포트작성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 논술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흔들리고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술 준비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참견과 곱지만은 않은 시선들이 후배님들을 괴롭힐 것이라 예상됩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은 오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사람은 드뭅니다. 힘든 일이 많겠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나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노력 하나하나가 거름이 되어 합격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착실히 준비하셔서 당일 시험장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말고 본인의 페이스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합격해서 21학번으로 만나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지하철 🚊

1호선 : (인천, 수원 - 서울역 - 청량리 - 의정부) 광운대역 하차, 도보 6분

6호선 : (응암 – 봉화산) 석계역 하차, 1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7호선 : (도봉 - 노원 - 군자 - 건대입구 - 청담 - 고속터미널 - 온수) 이용 시 태릉입구역에서 6호선으로 환승, 석계역 하차, 1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버스노선 🖽

정문앞 방면: 261번 / 1017번 / 1137번 / 1140번

광운대역 방면: 광운대역 하차(도보 6분) 173번 / 1130번 / 1133번 한천로 방면: 장위3동주민센터 하차(도보 5분) 145번 / 1111번 / 1218번 석계역 방면: 석계역 하차(셔틀버스 이용 또는 도보 10분) 1155번 / 1156번

석계역-광운대 무료셔틀버스

월요일 ~ 금요일 운행(하계, 동계방학기간 중 제외) 오전 08:00 ~ 10:30, 약 5분 ~ 10분 간격 운행 석계역 공영주차장 삼거리 - 석계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0m (뚝방길 대학방향 12번 마을버스 승차장)

태릉입구역-석계역-광운대 무료셔틀버스

월요일 ~ 금요일 운행(하계, 동계방학기간 중 제외) 오전 08:00 ~ 10:30, 약 10분 ~ 12분 간격 운행

태릉입구역 1번출구 앞 공항버스 정류장 정차 - 석계역 공영주차장 삼거리

(뚝방길 대학방향 12번 마을버스 승차장)



